



THE THINNEST  
TOURBILLON  
MOVEMENT  
IN THE WORLD

# BVLGARI

## OCTO

*finissimo*  
TOURBILLON

스위스에 위치한 불가리 타임에서는 고난도의 위치 제작 기술로 최고의 컴플리케이션 위치 까지도 모두 인하우스로 제작하고 있습니다. 옥토는 팔각형 케이스로 강렬함과 카리스마로 차별화되며 남성 위치를 자배해 온 전통적인 기준들을 초월합니다. 완벽함을 성장하는 이 팔각형 케이스의 110개 면은 모두 수공 브러싱과 폴리싱으로 마감되었으며, 불가리의 자사 크로노그래프 메카니컬의 무브먼트는 완벽한 규칙성과 정밀함을 구현합니다.

«*Details make perfection,  
and perfection is not a detail*»  
Leonardo da Vinci

# Style 조선일보

SPRING 2015

Special  
ISSUE  
멈추지 않는 도전과 진화, 시계  
2015 BASELWORLD



# OMEG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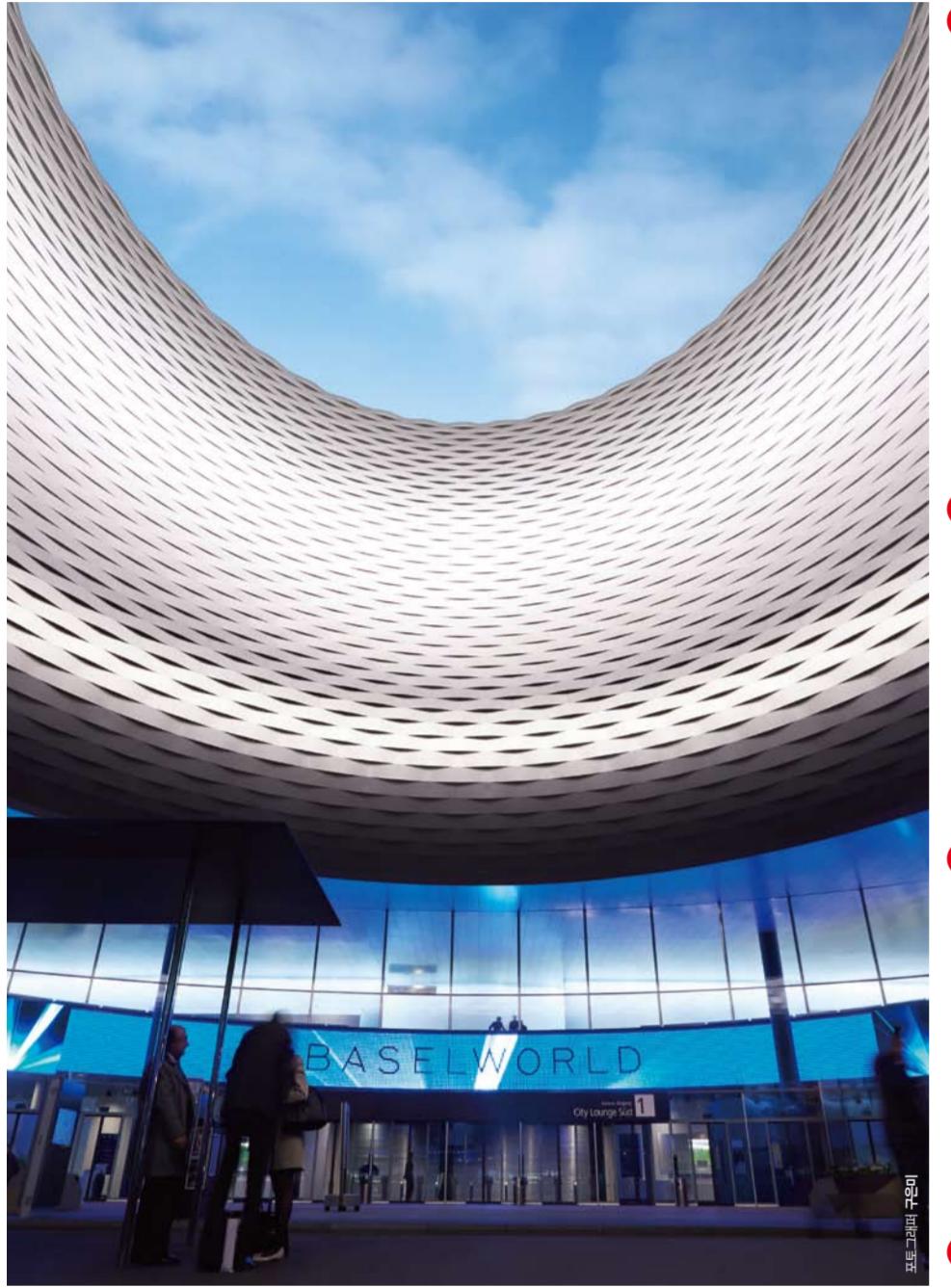


*Speedmaster*  
GEORGE CLOONEY'S CHOICE

Ω  
OMEGA

청담 부티크 02 511 5797 · 신세계 강남점 02 3479 6025 · 롯데 잠실점 02 2143 7266 · 현대 무역센터점 02 3467 8632  
현대 목동점 02 2163 1283 · AK플라자 분당점 031 708 5520 · 현대 대구점 053 245 2249 · 현대 부산점 051 667 0417

# Style 조선일보 Special Edition



08 SHOW TIME 2015년 3월 19일, 어김없이 지상 최대의 시계 박람회, 바젤월드의 포문이 열렸다. 바젤 시내 곳곳을 수놓은 시계 축제의 현장을 생생하게 전한다.

10 세계 시계 산업의 성장 동력, 바젤월드 올해는 바젤월드 현장을 축제화, 총 56개국에 걸쳐는 스페셜 에디션을 독자들이켜 전한다. 바젤월드의 현장 분위기와 시계 산업의 동향을 담은 리포트 기사로 <스타일 조선 바젤월드 스페셜 에디션 2015>의 이야기를 지금, 시작한다.

12 GREAT EFFECT 시계 박람회에서 그 무엇보다 주목받는 것은 놀라운 소재와 기능으로 무장한 하이 커플리케이션 워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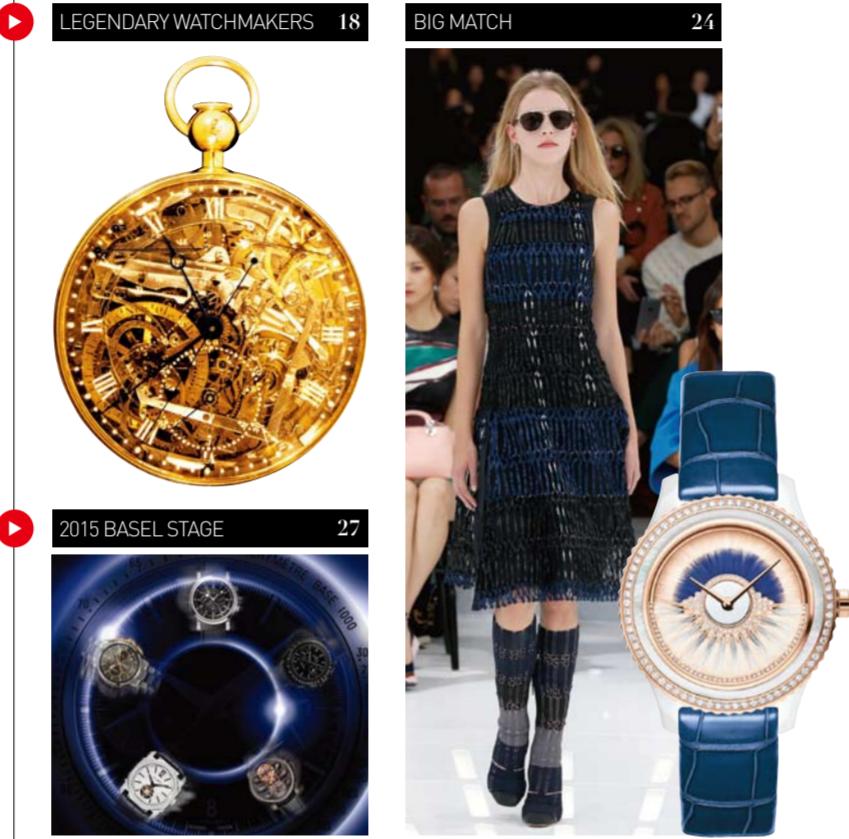
14 ULTIMATE BRILLIANT 환상적인 예술들이 담긴 경이로운 주얼리 워치 컬렉션의 세계다.

16 PERFECT GAME 컬렉션 의상을 반영한, 액세서리보다 스트리리시한 워치가 등장했다. 기능과 디자인, 어느 것 하나 뒤지지 않는 패션 워치를 만나본다.

18 LEGENDARY WATCHMAKERS 시계 역사에 큰 획을 그은 3인의 전설적 워치메이커를 소개한다.

20 TINY ELEGANCE 올해 바젤 페어의 여성 워치 트렌드는 조미니 사이즈로 왔다. 작고 뾰족한 것에 열광하는 여성의 손목에서 보석보다 눈부시게 빛날 미니 타임피스.

24 BIG MATCH 2015 S/S 컬렉션 키 룩(key look)과 바



[stylechosun.com](http://stylechosun.com)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이사 | 이성기 stonelee@chosun.com  
편집장 | 김우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판권 | 김현미 mhkim@chosun.com 배포전 mijin@chosun.com 에디터 | 김윤진 ykwon@chosun.com  
에디터 | 김혜리 jhye@chosun.com 이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진석 adjp0ns@chosun.com 조통일 ct@chosun.com  
자무 | 이민희 mhee@chosun.com 분해 | 제판 | 새빛 그레이픽스 인쇄 | 타리티파이어  
발행처 | 주)스타일조선 | 서울시 용산구 서원로 413 3층 하이에이온 비즈니스센터 110호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529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펑창동, 성복동, 강남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각주로 두 번 발행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08

0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113

114

115

116

117

118

119

120

121

122

123

124

125

126

127

128

129

130

131

132

133

134

135

136

137

138

139

140

141

142

143

144

145

146

147

148

149

150

151

152

153

154

155

156

157

158

159

160

161

162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173

174

175



## Jewel SECRET GARDEN

비젤월드의 수많은 시계들 사이에서  
아름답게 피어난 주얼리 컬렉션.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화이트 골드와 미더오브펄 소재를 더해 꽃봉오리를 완성한 플리워  
파인 주얼리 네오크스 오메가, 베젤 스틱 워치 중 하나인 디아몬드 페니에션 워치에서 분리  
할 수 있는 페니에션 링 그로프, 화려한 공작사에서 영감을 받은 옐로우 라운드 피뢰침,  
브랜드의 시그니처인 퀘스천 마크 네오크스, 콘트 clueless 브레이슬릿 모두 부쉐론, 에디터 베미진



## Event CELEBES IN BASELWORLD

올해 바젤월드에는 어떤 세계적인 스타들이 놓았을까? 브랜드를 대표하는 홍보대사로서, 신제품 라인의 뮤즈로서 스위스 바젤을 직접 찾은 셀리브리티의 라인업을 보는 재미도 쏠쏠하다. 특히 한국을 대표하는 배우 정동건이 세계적인 시계 브랜드 모리스 리크로이의 글로벌 앤솔러티 디자인으로 바젤월드에 참여해 한국 기자들로부터 친목을 느꼈다. 이쉽게도 한국에서는 그의 광고를 볼 수 없지만, 모리스 리크로이에서 정동건스 페셜 에디션 워치를 선보일 만큼 글로벌 시장에서 그의 인기는 실로 대단하다. 그는 3월 20일에 개최한 모리스 리크로이 컨퍼런스에 참석했는데, 그를 축하하기 위해 모인 프레스와 팬으로 컨퍼런스장은 인산인해를 이뤘다. 이날 공개한 '르 클래식 정동건 리미티드 에디션'은 오밀론 화이트 색상의 디아일을 품은 38mm 케이스, 18K 핑크 골드로 제작했으며 시사 무브먼트 ML155를 탑재한 것이 특징. 시피아어 케이스 뒷면에는 정동건의 사명이 새겨져 더욱 특별하다. 또 하나 큰 이슈가 된 소식은, 구찌타임파스와 세계적인 뮤지션인 카트리나 라이프스타일을 위한 제품을 선보이는 아이엔플러스(iam+) CEO인 월아이엔의 피트니션 발표다. 패션 액세서리인 동시에 최첨단 기술로 무장한 혁신적인 웨어러블 커뮤니케이션 기기 개발을 목표로 맛은 피트니션으로, 시계 기능 외에도 전화, 문자, 이메일, 음악, 피트니스 등 다양한 기능을 더한 기기를 개발해 추후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이 밖에도 불가리의 바젤월드 컨퍼런스에는 모델이자 배우인 애바 헤리지고비가 참석해 불가리의 신제품 발표를 축하했으며, 위를로의 홍보대사인 모델 바리파일리 역시 3월 18일 저녁, 관능적인 블랙 드레스 차림으로 위를로 부스를 찾았다. 빅뱅 탄생 10주년을 함께 기념했다. 에디터 김유진

## Focus BIG HOUSE, FRENCH CHIC

이름답고 완성도 높은 시계를 원한다면  
프랑스의 패션 하우스에서 디자인한 스위스  
메이드 워치를 선택하면 된다.

바젤월드에서 꾸준히 자소민의 영역을 넓혀고 있는 패션 하우스의 워치 브랜드들은 올해 확장적인 디자인으로 시선을 사로잡았다. 먼저 딜의 코아이에티브 디렉터 리프 시몬스는 레디투웨어 트렌드에서 영감을 받아 딜 시계 컬렉션에 화려함을 불어 넣었는데, 올해 딜은 '디올 워치 몽테뉴' 컬렉션에서 블루와 화이트·버건디·블랙 악어기죽, 라버 등 다양한 컬러를 선보였다. 샤넬이 화사해 봄이에 등장한다 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다. 2015 S/S 컬렉션을 떠올리게 하는 미드나잇 블루 악어기죽과 블랙 세리믹 워치도 시선을 사로잡는다. 최첨단 기술로 완성한 소재를 시계에 대입한 현대적인 디자인이 매력적이다. 시넬의 아이언인 JT2와 더불어 올해 바젤월드에서 새롭게 선보인 프리미에르는 매력적인 해석으로 새로운 웃음을 암겼다. 1987년에 탄생한 샤넬 향수 남버 5의 팔각형 향수병과 냄동 광장에서 영감을 받은 프리미에르는 '프리미에르 랙(Premiere Rock)'으로 변신해 새로운 디자인을 선보여 어窸을 사로잡았다. 핑크, 블루 컬러 혹은 베이지색으로 엿은 트론을 스틸 스트랩은 다른 브랜드에서 쉽게 찾아볼 수 없는 샤넬의 아이덴티티를 담아 놓았을 반응을 이끌어냈다. 올해 에르메스에서 소개한 이쏘 에 큐어 어벤추리온은 디일을 시계적으로 세워놓는 이辱다움을 선사한다. 무브먼트에도 장식적인 요소를 더했는데 나파린으로 장식한 무브먼트와 수공으로 완성한 마이크로 로터까지, 에르메스 특유의 세심함을 엿볼 수 있다. 에디터 베미진



##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달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Watch

#### 바젤월드의 또 하나의 주인공, 신소재

정교한 기술력으로 완성한 무브먼트도 바젤월드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지만, 거대한 워치 시장을 더욱 드라마틱하게 움직이는 것은 신소재의 등장이다. 디자인과 컬러, 무브먼트의 기법에 대작할 만큼 신소재의 위상은 대단하다. 이전에는 시계 소재로 사용되리라고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화이트 세리믹이 이제는 최고급 기계식 워치에까지 적용되고, 고무에 불과했던 러버 소재도 다양한 금속과 결합해 나구성이 뛰어난 필수 소재로 거듭났다. 단지 기계 투시성을 회수할 수 없기 때문에 신소재를 개발하는 것은 위험부담이 크지만, 그러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올해 바젤월드에서 리도와 폴렉스, 불가리가 새로운 도전장을 내밀며 시계 시장의 반경을 넓혔다. 리도는 현대적 연금술이라고 표현할 만큼 완벽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플라즈마 하이 퍼포먼스 세리믹'을 선보였는데, 손목에 올리는 순간 '정말 새롭다'라는 말이 절로 나온다. 세리믹을 매탈처럼 보이도록 기공하는 폴리즈마 기법은 리도만의 독보적인 특허 기술로, 매탈보다 가볍고 스크리치에 강하여 티타늄을 대신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강력하다. 게다가 차기운 느낌의 스타일에 비해 따뜻하고 부드러운 느낌을 선사할 뿐만 아니라 더욱 깊고 진한 컬러으로 기쁨을 더해준다. 시간이 지나도 광택감을 잃지 않는 자속성과 일상리기로 유발하지 않고 착용자의 체온에 은도가 맞춰지는 점 또한 주목할 만한 특징이다. 폴렉스는 '오이스터플렉스'를 선보였는데, 얇은 티타늄 블레이드에 유연한 일리스토머 스트랩은 독특한 방식으로 접목한 브레이슬릿이다. 나구성이 뛰어나고 탄성이 높으며 지외선에 강해 쉽게 변색하지 않는다. 불가리의 카네이드 워치인 '디아고'와 '에-마그네슘' 스트랩 한 기능을 갖춘 것은 물론 마그네슘과 퍼크 폴리머를 결합한 소재로 선보이며 불가리가 앞으로 나아갈 시기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이처럼 신소재의 개발은 차별화된 시계를 소유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또 다른 선택지가 되고, 편의성과 실용성을 추구하는 하이엔드 워치 시장에서는 더욱 주목할 만한 일기기도 하다. 2016년 바젤월드에서는 또 어떤 새로운 소재가 등장해 손목을 아름답고 편안하게 감싸줄지 기대된다. 에디터 베미진 아시스트트 에디터 박혜미



**THE DISCO BUTTERFLY**

# GRAFF

---

THE MOST FABULOUS JEWELS IN THE WORL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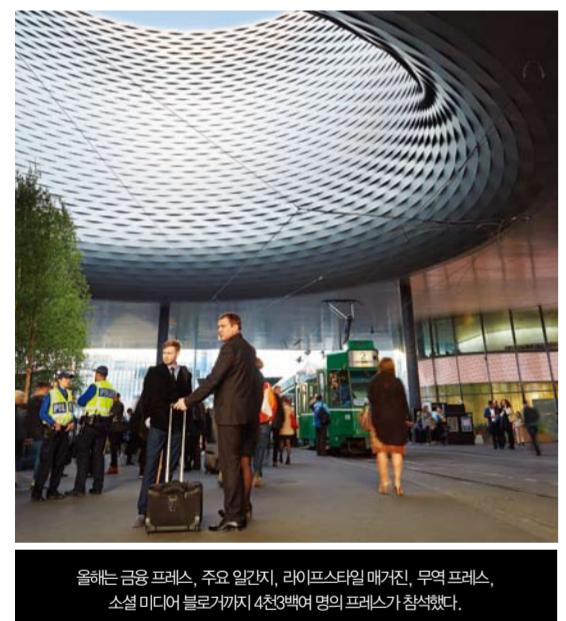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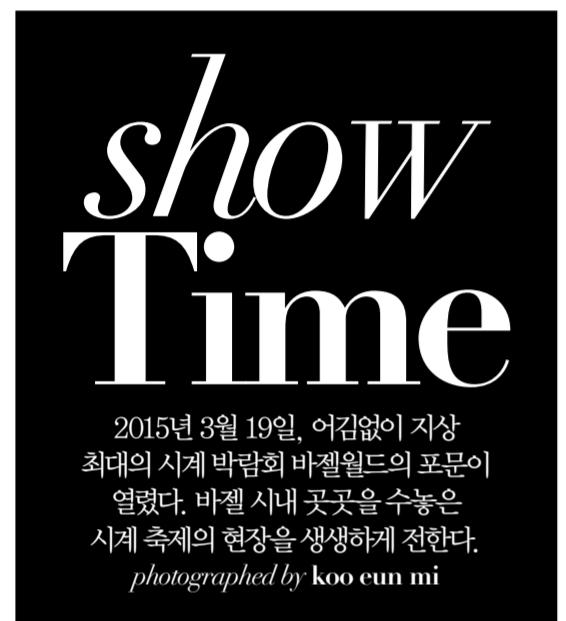
Slim d'Hermès  
watch in  
rose gold,  
Manufacture  
H1950  
ultra-thin  
moveme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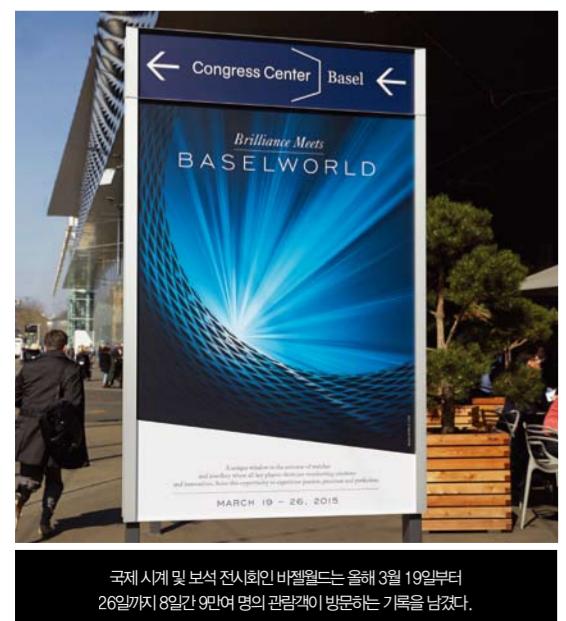
비젤 시내의 중요한 교통수단인 트램,  
비젤월드 기간에는 트램 전체가 시계 브랜드 광고판으로 이용되기도 한다.



바젤월드는 매년 40여 개국의 1천5백 개 브랜드 참가한다. 각종 면적 약 141,000m<sup>2</sup>에 이르는 바젤월드 건물을 시계 비즈니스의 플랫폼으로 이용하기 위해 그 기능은 충장 불가능할 정도. 바젤월드는 시계뿐 아니라 다이아몬드, 원석, 진주 제품의 유통에까지 선두 주자 역할을 하고 있다.



올해는 금동 프레스, 주요 알간지, 라이프스타일 매거진, 무역 프레스, 소셜 미디어 블로거까지 4천3백여 명의 프레스가 참석했다.



국제 시계 및 보석 전시회인 바젤월드는 올해 3월 19일부터 26일까지 9일간 9천여 명의 관람객이 방문하는 기록을 남겼다.



에디터 베이비진

Publié Et Nouveau



SLIM D'HERMÈS, PURITY IN MOTION.

HERMÈS  
PARIS

라 풍트르 에르메스 코리아  
02 542 6622  
Hermes.com



# 세계 시계 산업의 성장 동력, 바젤월드

## No Time to Rest, 바젤월드

세계적인 건축가 헤르조그(Herzog)와 드 메론(De Meuron)이 디자인한, 거대한 우주선을 연상케 하는 미래 지향적인 건축미가 돋보이는 바젤월드 박람회장. 총 1천여 개의 전시 부스로 가득한 메세바젤(Messebasel)을 중심으로 바젤 시내는 세계 광고로 도배된 트램과 버스가 거리를 누비고, 곳곳에서 바젤월드 깃발이 펄럭인다. 바젤은 매년 3월, 도시 전체가 축제의 현장이다. 바젤 시내에 위치한 호텔은 1년 전부터 예약이 꽉 찰 뿐만 아니라 스탠드드 룸의 가격이 하루에 1백만원을 호가할 만큼 바젤 시내의 물가가 폭등하는 기이한 현상도 벌어진다. 페어 기간 동안에는 대부분의 레스토랑에서 바젤 메뉴라는 특별한 메뉴를 맛볼 수 있으며 이곳들 역시 족히 한 달 전에는 예약해야 할 정도로 전 세계 시계 바이어들과 프레스, 세계 브랜드 관계자, 세계 마니아들이 바로 이곳 스위스 바젤에 집결한다. 거대한 우주선 같은 박람회장 안에는 스와치 그룹의 위치 브랜드를 중심으로 수백 개에 달하는 시계 브랜드의 부스가 자리 잡고 있다. 부스들은 각 브랜드만의 아이덴티티와 콘셉트를 담은 매장 형식으로 꾸며져 있어 부스 외관을 보는 것만으로도 흥미를 자아낸다. 매년 1월 제네바에서 개최되는 SIHH가 초대받은 인원만 입장 가능한, 백화점과 유사한 부티크 형식의 박람회라면 바젤월드는 '월드'라는 이름답게 10개의 훌, 160,000m<sup>2</sup> 면적의 압도적인 크기를 자랑한다. 바젤월드와 SIHH는 시계 박람회의 양대 산맥인데, 고급 시계 박람회인 SIHH가 터시도와 드레스 차림으로 참석해야 하는 프리어빗한 파티 같은 성향을 띤다면 바젤은 개주얼한 차림으로도 참석할 수 있는 보다 대중적인 박람회다. 바젤월드 첫날인 3월 19일 아침 8시, 박람회장에 입장하기 위해 모인 사람들의 표정에선 올해는 과연 어떤 시계가 나올 것인가 하는 기대감을 읽을 수 있다. 이들의 분주한 발소리는 바젤월드에 울려 퍼지는 빠른 비트의 음악과 어우러져 분위기에 활기를 더한다.

## 시계 산업을 위한 완벽한 플랫폼, 바젤월드

그렇다면 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비용을 투자해 바젤월드에 모이는 이유는 무엇일까? 바젤월드는 시계 산업에서 결코 놓쳐서는 안 되는 국제적 트렌드 행사이며 보석, 다이아몬드, 원석, 진주, 기계를 포함한 시계에 관련된 모든 부문의 산업을 한데 모아게 해주는 유일한 행사다. 올해는 혁신성과 창조성을 갖춘 1천5백여 개 브랜드가 제품을 선보였고, 무려 1백

여 개국의 전시 회사 대표, 바이어, 기자, 기타 방문객을 포함한 약 15만 명의 참관객이 방문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 7.5% 늘어난 약 70개국의 4천3백 명 이상의 프레스 대표가 박람회에 참여해 바젤월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졌다는 것을 증명하기도 했다. 바젤월드 기획자인 실비 리터(Sylvie Ritter)는 “많은 사람들이 찾는 활기찬 박람회의 모습이 바젤월드가 발전하는 데 원동력이 됩니다. 소비자와 미디어의 끊임없는 관심은 언제나 중요하지요. 앞으로 편의성과 영향력을 증진시켜 선망의 대상이 되는 바젤월드의 국제적인 위상을 지켜낼 것입니다”라고 이야기했다.

## 위기를 넘어서는 새로운 비전이 필요한 시기

스위스 시계산업협회 회장 장-다니엘 페슈(Jean-Daniel Pasche)는 2015년 바젤월드의 시작을 알리며 “2014년 시계 수출량이 2백20억 스위스프랑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기록을 경신해 스위스 시계 산업에는 긍정적인 한 해였지만 올해는 조금 힘들고 불확실한 기운이 맴도는 것이 사실입니다. 아시아와 유럽의 몇몇 중요한 시장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고, 그에 따라 성과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더불어 스위스프랑 환율 상승 쇼크는 시계 산업에 심각하게 타격을 주었죠. 이는 저희가 통제할 수 없는 문제이자 새롭게 풀어나가야 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거의 4세기 가까이 지속해온 스위스 시계 산업이 이 어려움을 극복해낼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고 올해 바젤월드의 명암을 솔직히 이야기했다.

사실 올해 초 바젤월드는 이전과는 매우 다른 그림을 보여주었다. 스위스 시계산업협회는 2015년 초반에 좋은 출발을 한 것처럼 느꼈지만, 전체적으로 시계 산업의 성장 속도가 이전보다 더디다는 것을 받아들여야만 했다. 스위스 박람회위원회 회장 프랑수아 티에보(François Thiebaud) 역시 바젤월드 오프닝 컨퍼런스에서 스위스 시계 산업이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그럼에도 시계 산업은 높은 수준으로 성장하리라는 의견을 피력했다. 과거 시계 산업 성장의 원동력이었던 홍콩과 중국의 시계 수요가 감소한 것이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의 원인이라는 평이 일반적이다. 이미 2014년부터 스위스 시계에 대한 홍콩과 중국의 수요가 3.1%나 감소했다. 전년도에 미국의 수요가 6.2% 증가했지만, 이것만으로 홍콩과 중국의 수요가 감소한 것을 상쇄하기에는 역부족이기에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하지만 긍정적인 신호도 엿보이는데, 2백 스위스프랑 이하(수출 가격 기준)의 시계 판매는 2014년보다

6.2% 증가했고, 2백 스위스프랑 이상의 시계는 수출량이 4%나 감소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이는 엔트리 위치 시장이 더 넓어졌다는 의미이며 앞으로 시계 시장 전체가 보다 대중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증거인 것. 올해 태그호이어, 크로노스위스, 브라이틀링 등 비교적 높은 가격대의 기계식 시계를 다루는 하이엔드 브랜드까지 합리적인 가격의 엔트리 레벨 제품을 대거 선보인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도 스와치 그룹은 90억 프랑의 매출량을 달성했다는 좋은 소식을 알렸다. 어려웠던 환율 영향에도 2014년 대비 4.6% 증가한 90억 프랑의 벽을 깨고, 순매출 액은 3%대의 성장을 기록해 벽수를 받았다. 지난해만 2천1백 개의 직업을 창출했을 정도로 스와치 그룹의 시계 비즈니스가 건강한 경제성장에 큰 물을 했기에 더욱 의미 깊다. 혁신, 기계, 유통, 직원, 스위스 제조 활동에 투자를 하며 장기적인 전략을 펼친 것이 올해 매출 성장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 스마트 위치의 신호탄, 스위스 위치 시장의 미래를 뒤흔들다

올해 바젤월드를 뒤흔든 또 하나의 테마는 스마트 위치, 몸과 하나되는 기술을 강조한 웨어러블 테크다. 다소 트렌디하게 느껴지는 스마트 위치가 어떻게 정통 시계 박람회에 들어서게 되었을까? 바젤월드 2015의 훌을 걷다 보면 이전의 바젤월드는 보통 클래식한 시계가 주를 이루었지만, 처음으로 웨어러블 테크놀로지라는 개념을 적용한 시계들이 대거 등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계 브랜드의 프리미어 리그라고 불리는 훌 1로 들어서면 입구에 거대하게 자리한 태그호이어 부스 앞에 인텔과 구글의 로고가 새겨진 현수막이 보였다. 2개의 거대한 기술 회사가 태그호이어와 손잡고 훌 1에 그 이름을 드러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다. 클래식 시계 산업은 1980년대의 디지털 품을 잘 인식하고 있기에 스마트 위치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기술이라는 거대한 폭풍이 불어닥치면서 카시오(Casio)로 대표되는 디지털 위치 브랜드에 시장 점유율을 빼앗았던 웨어러블 기기의 악몽 때문에 태그호이어의 아시아 퍼시픽 마케팅 매니저는 태그호이어가 스마트 위치 시장에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고 이야기했다. LVMH에 편입되며 공격적인 마케팅을 펼치고 있는 불가리는 ‘임파서블’이라는 미션을 콘셉트로 한 ‘디아고노 e-마그네슘’을 선보였는데, 가상 보안 금고와 비슷한 ‘불가리 볼트(금고)’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 사용자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개

인 정보를 보호하고 손목시계에 저장할 수 있게 제작했다. 또 프레드릭 콘스탄트, 브라이틀링과 같은 클래식 시계 브랜드들도 본격적이지는 않지만 웨어러블 위치나, 커넥티드 위치를 만들 예정이라는 신호를 보냈다. LVMH 그룹의 시계 부문 회장 장-클로드 비에는 <스타일 조선일보>와 나는 인터뷰에서 스마트 위치에 대한 흥미로운 답변을 내놓았는데 “스마트 위치는 확고한 고객층을 확보하고 있어 미래가 있습니다. 스마트 위치는 전통적인 위치매이킹 어플을 대신할 수는 없으나 일반적인 웨어러블 시계는 대체할 수 있겠지요. 저는 심지어 같은 고객이 스마트 위치와 일반 시계를 동시에 구매하고 착용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라며 시계업계의 오랜 리더로서 명확한 의견을 피력했다.

올해 스마트 위치가 등장하며 스위스 기계식 시계 산업이 과거 웨어러블에 비교될 만큼 민감한 시기를 보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예술성과 정교한 기계의 아름다움이 결합되어 독특한 매력을 지닌 흥미로운 기계식 시계의 매력은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특히 스위스 시계 제조의 정성화, 기술적인 독창성, 진화하는 미학적인 요소는 바젤월드에 사람들을 불러 모으는 촉매제다. 현실적으로 5만 명 이상의 생계를 책임지는 스위스 비즈니스의 중심축이라는 것 역시 바젤월드가 갖는 사회적인 중요성을 깨닫게 한다. 지난 최대의 시계·주얼리 박람회로 작은 보석 회사부터 최고의 시계 그룹까지 한데 모아 브랜드의 성장을 지킬 수 있도록 정교하게 구성되었기에 세계 시계 비즈니스는 바젤월드라는 틀을 벗어나 더욱 발전할 것을 확신한다. 마지막으로 스위스 박람회위원회 회장인 프랑수아 티에보의 말을 인용하며 글을 마친다. “여러분 모두는 바젤월드에서 만나 뵙게 돼서 기쁘고 영광입니다. 바젤월드는 박람회의 풍부한 역사와 전통을 상기시켜왔습니다. 또 박람회 산업의 장점을 반영하고 발전시켜가고 있는 유일한 행사이며, 브랜드 각각 좋은 성과를 발휘할 수 있게 단단한 기반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매우 훌륭한 행사라고 생각합니다. 점증적으로 주요한 파트너들을 만날 수 있는 장소이며 글로벌 네트워크를 갖춘 가장 중요한 연중행사이기도 하지요. 스위스 시계 산업 종사자들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 미술과 같은 훌륭한 시계와 보석을 제작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세기에 걸쳐 전통 기술을 지켜나가는 수호자들이기도 하죠. 전통과 혁신을 조화롭게 만드는 그들의 뛰어난 능력은 스위스 시계의 훌륭함을 세계에 널리 알렸습니다. 올해 바젤월드에서 명예로운 스위스의 유산, 기계식 시계 산업의 매력을 마음껏 즐기시길 바랍니다.” ■ 에디터 배미진(바젤 현지 취재)

# great Effect

시계 박람회에서 그 무엇보다 주목받는 것은 놀라운 소재와  
기능으로 무장한 하이 콤플리케이션 워치다. 독보적인 자사  
무브먼트로 자신만의 새로운 시간을 만들어나가는 진정한 워치  
브랜드의 대격돌.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제니스 아카데미 조르주 파  
르브 자그마치 백금770의 부품으로 완성한 드로미티  
한 패드의 대담한 워치. 하중을 균등하게 분배하기 위해  
배설에 편안 & 체인이라는 새로운 방식을 적용했다. 단성  
1백50주년을 기념해 100개 한정 판매했다. COSC 인  
증을 받은 엘프리미로 4810 매뉴얼 무브먼트를 장착했  
다. 문의 02-2118-6225

브리에 미친 크로노그래프 46 주년 마린 마린 5823 브랜드 창  
립자 아브람 루이 브리에가 해수를 위한 크로노미터에  
이っぽ이 일정된 지 2년 된 것을 기념하기 위한 브리에의 뉴  
마린 클락선 플레이트 남자에 세프 와인딩 무브먼트를 더  
해 오직 캔 퍼스 한정 판매한다. 헨리 기요세 빌리고 및  
한 블랙 걸스 라버 스트랩은 실용성과 남성을 모두 갖추  
었고, 100m 방수 기능을 더했다. 문의 02-2118-6480

자리드 페리고 네오 투르비옹 쓰리 브리지 브랜드의 고유  
한 전통을 경향할 수 있는 독창적인 구조의 쓰리 브리지 워  
치에 투르비옹을 경향한 티파늄 소재의 놀라운 워치. 이 디  
자인은 1860년에 처음 등장했다는 것과 더욱 놀랍다. 다  
이같은 혁신 구조를 구현하는 디자인은 자리드 페리고가  
24년이나 넘는 역사를 지닌 매뉴팩처 브랜드라는 것을 시  
각적으로 확인하게 한다. 오토매틱 간판바인 GP0400-  
0002를 장착했다. 문의 02-3467-8372

불가리 옥토 무브비옹 플 디아몬드 자체 제작 무브먼트  
인 BVL 263 칼리버를 장착한 워치에 주얼리 브랜드의 가  
치를 대하는 최고의 디아몬드 2462개를 사용한 환상  
적인 워치. 인사자를 세로으로 간단히 찾아볼 수 있다. 출  
시에 자리한 1백73개의 박테트 컷 디아몬드와 투르비옹  
캐리지의 만남이 드라마틱하다. 문의 02-2056-0172

브리에 투르비옹 갤러리 유니버설 슬리프 T 브리에 투르비옹의 자사  
세프 와인딩 무브먼트인 갈리버 B35를 장착한, 올해 바젤  
월드에 출전한다. 브랜드 최초로 크로노그라프 기능이 있는  
무브먼트를 장착해 기편한 기능이 강점이다. 크로노운을  
앞뒤로 빼서 움직이는 것으로 전 세계 시간을 맞출 수 있는  
편리함도 더했다. 배경에 흰색 터보 세프 소재를 적용해 내  
구성까지 뛰어나다. 문의 02-3448-1230

해리 윈스턴 프로젝트 Z9 최첨단 하이테크와 놀라운 기술  
력을 잘 드러낸 해리 윈스턴의 시그니처 모델. 자사 무브먼트  
인 HW304를 장착했고, 3백25개에 달하는 부품을 조립해  
완성된다. 항공기에서 사용하는 첨단 소재인 질소음을 적용  
한 해리 윈스턴만의 독보적인 요소다. 문의 02-  
540-1356 애디터 베이진



# GP GIRARD-PERREGAUX

MECHANICS OF TIME SINCE 1791



## GIRARD-PERREGAUX 1966

GIRARD-PERREGAUX 033MO CALIBER, SELF-WINDING MECHANICAL MOVEMENT  
HOUR, MINUTE, CENTRAL SECOND, FULL CALENDAR WITH INDICATORS OF THE DATE,  
DAY OF THE WEEK, MONTH AND MOON-PHASES – 46-HOUR POWER RESERVE  
40MM PINK GOLD CASE WITH SAPPHIRE CRYSTAL CASE-BACK – ALLIGATOR STRAP WITH PIN BUCKLE

현대백화점 무역센터점 02)3467-8372 롯데면세점 소공점 02)759-6705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02)3213-3905  
롯데면세점 제주점 064)731-4482 신라면세점 제주점 064)710-7100 워커힐 면세점 02)450-4912 그랜드면세점 대구점 053)251-2125



시선을 강탈하며 압도적인 비주얼을 자랑하는 하이 주얼리 워치는 바젤월드의 하이라이트다.  
환상적인 예술성이 담긴 경이로운 주얼리 워치 컬렉션의 세계.

(왼쪽 아래부터 시계 방향으로) 해리 윈스턴 쥬얼리스 시크릿 바이  
해리 칸센 여성용 주얼리 시계의 정수를 보여주는 해리 윈스턴에  
서 선보이는 알阵营 파더 콜백트 워치. 독특한 향파의 노을길을 끄는  
제품으로, 꽃을 모티브로 한 해리 윈스턴의 대표적인 줄리엣 스트랩을 클러  
스터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7452개의 다이아몬드, 48개의  
핑크 세라미어, 51개의 로즈 핑크 진주를 사용한 호화로운 장식을  
통해 진정한 럭셔리가 무엇인지 느끼게 해준다. 특히 실제 파우더  
광택처럼 가볍고 나장한 디자인을 확보하는 동시에 외모를 확보  
할 수 있다는 점이 독특하다. 문의 02-540-1356

사설 J12 신소재에 대한 결함을 느꼈던 사설이 하이파크 세라미아  
로 만든 최초의 워치, J12. 하이파크에 대한 로망을 지난 여성들에게  
마스트 해브 오픈으로 등극했던 J12가 올해 탄생 15주년을 맞  
아 새롭게 출시된다. 새로운 J12는 배젤부터 디자일, 스트랩까지  
시계를 세팅 바카트 컷 다이아몬드로 채웠다. 오토매틱 무브먼트와  
50m 방수 기능을 갖춘 것은 물론 38mm의 큼한 디자인으로 인도  
적인 비주얼을 자랑한다. 사설의 아이언인 J12의 다양성을 보여주  
는 이번 사설은 베젤 사이드의 스파일, 블루 세라미어, 러비 등 총  
세 가지 세팅 버전 중 선택할 수 있다. 화려한 정수를 느끼고  
싶은 여성에게 추천한다. 문의 02-3442-0962

불가리 세르펜티 헤드 오버 태일 더욱 과감해진 세르펜티 디자인의  
눈길을 끌고 가기 위한 상장적인 주얼리 워치. 오리지널 세르펜티  
디자인을 재해석해 머리가 고리 위로 올리도록 제작했다. 골드,  
마더오브펄, 레거, 다이아몬드 등 다양한 소재로 제작한 세르펜티  
헤드 오버 태일은 주얼리 외모로서 갖춰야 할 화려한 디자인은  
물론 손목을 부드럽게 감싸는 편안한 착용감이 특징이다. 무브먼트  
는 퀄리티를 위해 갖은 제작한 스위스 퀴즈 무브먼트 칼리에 B03  
을 탑재했다. 0.46캐럿의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6개를 세팅한  
케이스, 레드 레카로 흐트한 킹크 골드 브레스일릿도 눈여겨볼  
분이다. 문의 02-2056-0172

브라운 레이브 드 플뢰 오뜨 조와리 베젤을 타고 내려오는 깃털 디  
자인이 시선을 사로잡는 타임피스. 깃털 달린 펜으로 오스트리아에  
있는 기증에게 편지를 즐겨 썼다는 미리 알투네트 왈비의 일화  
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다. 시아즈가 각기 다른 다이아몬드를 사  
용해 깃털과 섬세한 디자인을 형상화했는데, 줄기 부분에는 바  
게트 컷 다이아몬드, 깃털 부분에는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

를 세팅해 화려함을 더했다. 언정 터닝 기법으로 깃털에 입체감을  
불어넣고 배색과 플랫하는 물론 캐리온 역시 다이아몬드로 미루어  
해 브레이크의 성능을 살릴 수 있다. 이외에도 0.14캐럿의 브리  
언트 컷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세련된 스트랩을 더해 우아한 분위기를  
증진다. 문의 02-3438-6218

부쉐론 아티스 피쉬 1850의 역할을 자랑하는 부쉐론의 워치 기  
능이 집약된 주얼리 워치. 케이스 안에서 자유로이 해엄차는 물고기  
의 미리에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특히 서로 다른 높이로 세팅해 더욱 입체  
적으로 느껴진다. 디자일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45mm짜리 다이  
아몬드와 블루 마더오브펄의 광택은 그에게는 케이스는 디아일에 빛  
과 움직임을 더해줘, 악기기죽으로 제작한 건강한 하이라이트 스트랩  
은 디아일에서 고급스러다. 중심부에는 플리밍 투르비옹이 탑재  
되어 비주얼적 아름다움을 배가된다. 문의 02-3213-2246

부쉐론 아티스 피쉬 1850의 역할을 자랑하는 부쉐론의 워치 기  
능이 집약된 주얼리 워치. 케이스 안에서 자유로이 해엄차는 물고기  
의 미리에는 다이아몬드를 세팅했다. 특히 서로 다른 높이로 세팅해 더욱 입체  
적으로 느껴진다. 디자일 중앙에 자리 잡고 있는 45mm짜리 다이  
아몬드와 블루 마더오브펄의 광택은 그에게는 케이스는 디아일에 빛  
과 움직임을 더해줘, 악기기죽으로 제작한 건강한 하이라이트 스트랩  
은 디아일에서 고급스러다. 중심부에는 플리밍 투르비옹이 탑재  
되어 비주얼적 아름다움을 배가된다. 문의 02-3213-2246

그리프 디스코 버블레이 워치 험운을 기자주하는 나비를 모티  
브로 한 워치로, 이전에도 그리프는 나비를 활용한 워치들을 많이  
선보았다. 올해 바젤월드에서 선보인 디스코 버블레이 워치는 그  
리프의 아이언인 레디스 워치 디자인에 패배 세팅 디자일 위로  
나비가 맴도는 것이 특징이다. 속도가 속도를 즐기 때문이다. 내  
부 모터를 통해 보석이 움직이며, 다이아몬드 세팅한 나비가 회전  
한다. 에디터 김자혜

MAURICE LACROIX  
Manufacture Horlogère Suisse



YOUR TIME IS NOW.

MAURICE LACROIX  
Manufacture Horlogère Suisse



FC BARCELONA  
OFFICIAL WATCH



# Perfect game

매일 새 시계를 차고 싶다면  
욕심일까? 웃을 갈아입듯 스트랩을  
변경할 수 있는 시계라면 가능할지도  
모를 일이다. 기능과 디자인,  
어느 것 하나 뒤지지 않는  
스타일리시 코드 위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에르메스 케이프 코드 TGM 오토메티ック 에르메스의  
상장된 위치 케이프 코드의 뉴 베전 디자인 중앙에 기묘세 찻잔과 날짜 표를  
추가해 깊이 있는 디자인을 더했다. 스트랩 변경이 가능하고 에르메스의 베전 액  
세서처럼 유용하지 않는 디자인으로, 글라시안 벗을 즐기는 이들에게 제작하  
다. 문의 02-3448-0728 스와로브스키 아티파 데이 화트 스티치 장식의 디  
블 스트랩이 특장인 외부, 다른 주얼리들과 자연스럽게 레이아웃할 수 있고, 척  
용자의 손목을 더욱 기꺼이 보이게 만들어준다. 배설에 52개의 크리스탈을 사용  
해 주얼리로 손꼽힌다. 문의 1661-9068 펜디 셀리리아 리비에라 에디션  
핸드 스티치가 인상적인 셀리리아 워치의 리비에라 베전 팬던 아이코닉 이스  
투으로 떠나 영감을 받은 기하학적인 디자인 매력적이다. 전 세계 50개점

주시되는 캐리온 / 디를 사랑하는 펜디 마니아의 마음을 예로시킨다. 문의 02-  
2056-0023 펜디 카키 길드 오토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해밀턴 미군을 지원  
하기 위해 고안한 위치로, 밀드타이리 분위기를 물씬 풍긴다. 엣스러운 반지가 그  
린 걸리 나일론과 카르보나주 갠더스 스트랩은 반지와 함께 멋진 시계  
애호가들이 취향을 만족시킬 것. 문의 02-3149-0953 퀸 월 블루 플립 컬  
러 스탈 디자인 디클의 2015 FW 시즌 레디투웨어 컬렉션에 사용한 걸리와 소  
재를 그대로 적용해 탄생시킨 위치. 두 가지 소재를 결합한 시즈널 스트랩이 특  
징이며 한 컬렉션 의상과 완벽하게 매치되는 점에서 디자인 리프 시리즈  
의 영광이 둘보인다. 문의 02-3479-1710 콤비 타임스 & 주얼리 G-타임  
리스 슬립 한눈에 빠도 구찌의 시계임을 알 수 있는 3색 월 스트라이프 스트랩이

www.hamiltonwatch.com



INTO THE DREAM



SPIRIT OF LIBERTY  
AUTOMATIC SWISS MADE

**HAMILTON**  
AMERICAN SPIRIT • SWISS PRECISION

New Store Opening ENTAS DFS MAIN

BOUTIQUE 현대백화점 천호점

HOUR PASSION 롯데월드몰점 코엑스몰점 갤러리아백화점 대전점 센텀시티점 수원점  
신세계백화점 부정 강남점 경기점 광주점 센텀시티점 영등포점 의정부점 인천점 충청점 AK플리자 구로본점 수원점 원주점 평택점  
현대백화점 본점 동구점 대구점 목동점 무역센터점 미아점 신촌점 울산점 중동점 충청점 카리스점 디큐브시티 신도림점 거제점  
DONGWHA DFS LOTTE DFS MAIN COEX WORLD BUSAN SHILLA DFS SEOUL INCHEON AIRPORT JEJU WALKERHILL DFS







# New Certification

## 리딩 브랜드로서의 자부심, 오메가의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 시스템

2015년 3월, 바젤월드 취재 준비가 막바지에 치달았을 무렵, 오메가가 바젤 시내에서 큰 행사를 개최한다는 소식을 전해왔다. 바젤월드의 정식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하기 하루 전, 개회식을 연 행사 당일까지 모든 내용은 암바고에 붙여 철저하게 감추어져 있었다. 단순히 새로운 시계를 선보이는 것을 넘어 중대한 내용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만 전해 들은 채 본 행사 전날 바젤에 도착했다. 오메가는 가장 규모가 큰 시계 박람회라 할 수 있는 바젤월드에서 매우 특별한 위치를 차지한다. 메인 홀의 정중장에 자리 잡고 있을 뿐 아니라(바젤월드에서 브랜드 부스의 포지션은 브랜드의 지위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하다) 스위스를 대표하는 정통 시계 기업인 스와치 그룹의 허리를 드든히 반겨주고 매출, 컬렉션의 숫자, 시장 장악력 등 모든 측면에서 절대적인 존재감을 드러내는 브랜드이기 때문이다. 그 때문에 오메가가 이례적으로 바젤월드 전시장 밖에서 비밀리에 행사를 개최한다는 것 자체가 독특한 일이었기에 이벤트에 대한 기대는 높아져갔다.

Bartha Art Gallery)에서 개최한 오메가의 새로운 아벤트는 시계업계의 축제라 할 정도로 성대하고 의미 깊은 윤곽을 드리냈다. 여타 브랜드와 같이 새로운 앰배서더를 소개하거나 신제품의 론칭을 알리는 것을 넘어 '마스터 크로노미터'라는 새로운 인증 시스템을 발표한 것. 시계를 만드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오랜 기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특정 브랜드에서 다른 브랜드 위치의 기준이 될 수 있는 인증 시스템을 갖춘다는 것은 전례 없는 사건이다. 사실 오메가는 지난 2014년 겨울, 스위스 계측 연방 연구소(METAS, Swiss Federal Institute of Metrology)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2015년부터 새로운 시계 인증 방식을 실행하기로 발표한 바 있다. 그 결과 2015년 바젤월드에서 마스터 크로노미터 기준을 공표함과 동시에, 이를 통과한 최초의 시계 글로브마스터를 선보이는, 시계 역사에 남을 만한 이벤트를 개최하게 된 것이다.

## 오메가의 역사를 담은 새로운 기준

오메가 CEO 스티븐 우파드는 바젤월드 데일리 뉴스와 나눈 인터뷰에서 이 새로운 인증 시스템의 의미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이 시계 인증은 오메가가 코-액시얼 마스터 크로

노미터(Omega Co-Axial Master Chronometer)에 주어진 것으로, 이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무엇보다 기억해야 할 것은 METAS를 통해 인증받았다는 것입니다. 측량과 절차를 확인하는 모든 부문의 권한을 지닌 스위스 연구소인 METAS의 인증은 보다 차원 높은 새로운 품질 개념을 담고 있습니다. 이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시계가 1만5천 가우스의 강한 자기장을 견뎌야 할 뿐만 아니라 하루 동안 0~5초 오차 범위를 넘지 않는 저항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여기에 일정 수준 이상의 파워 리저브와 방수 기능까지 깃타로운 기준을 거쳐야 하기에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까지 스위스 크로노미터 공식 인증 기관(COSC)이 시계 산업의 크로노미터 기준을 결정해왔지만, 이제 METAS 인증이(물론 지금 당장 COSC를 대체할 수는 없겠지만) 스위스 시계의 또 다른 품질보증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인증 시스템을 선보인다는 것 자체가 오메가에는 정말 흥분되는 일이고, 저희가 출시하는 제품이 혁신성, 품질, 디자인 등 모든 면에서 뛰어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지난해 오메가와 스와치 그룹 CEO 닉 하이에크(Nick Hayek)와 함께 발표한 이 새로운 프로젝트는 성공리에 마무리되었고, 그 결과가 바로 마스터 크로노미터인 것. 오메가의 미래에 커다란



이정표가 될 첫 번째 발걸음을 옮겨 바젤월드를 통해 내디뎠고, 행사장을 찾은 수많은 시계 전문가들에게 큰 갈채를 받았으니 꽤나 인상적인 출발이었다.

## 가장 빛나는 별, 글로브마스터

오메가는 이 인증 시스템의 가치와 의미를 더욱 드라마틱하게 알리기 위해 최초로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위치, 글로브마스터(Globemaster)까지 선보였는데, 이미 오메가의 고전적인 매력을 고스란히 담은 디자인으로 눈길을 사로잡았다. 이벤트 당일 오메가 상품 개발 및 고객 서비스 부사장 장-클로드 모나송(Jean-Claude Monachon)의 연설에서도 이 위치를 선보이기까지의 깊은 고민이 여실히 느껴졌다. "시계 케이스 백에 있는 8개의 별은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오메가의 무브먼트가 세운 정확성에 대한 기록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할 여덟 가지 METAS 인증 기준을 가리키기에 더욱 중요하지요.

이 8개의 별과 여덟 가지 인증 표준 절차를 통해 오메가는 최상의 정확성을 고객에게 제공합니다. COSC 테스트를 통과한 무브먼트만이 METAS가 승인한 표준 테스트를 받을 수 있게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 시스템은 더욱 정교하고 멀할 수 있지요. 무브먼트만이 아닌, 시계 케이스에 들어 있는 완성품 상태에서 모든 테스트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보다 현실적이고 진보적인 인증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고객은 시계와 함께 인증 카드를 부여받으며 그 카드에는 각각의 테스트에서 어떤 성과를 보여주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식별 넘버가 적혀 있습니다. 고객들에게 최고의 위치만을 선보이고 싶은 오메가의 집념은 담은 위치입니다." 글로브마스터를 소개하는 전시장에는 참석한 게스트들이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물건의 자

상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어 있었는데 휴대폰, 태블릿, 카메라, 그리고 핸드백의 잠금장치 등 소지품이 지난 자성을 측정·체험할 수 있었다. 향자성 기계식 무브먼트가 박동하는 글로브마스터는 4년간의 보증 기간을 제공하기에 그 가치를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고안한 퍼포먼스인 것.

보다 웰리티 높은 기계식 시계를 인정적으로 꾸준히 공급하기 원하는 오메가의 도전 정신이 담긴 글로브마스터 컬렉션은 이렇듯 진보적인 기술을 적용한 기계식 무브먼트를 담았을 뿐 아니라 오메가의 가장 클래식한 디자인, 컨스텔레이션의 초기 모델에서 영감을 받았기에 오메가의 정수를 그대로 느낄 수 있다. 글로브마스터 디자인 중 무엇보다 눈길을 사로잡는 것은 시계 수집가들에게 오랜 시간 언급되어온 파이-팬(pie-pan) 다이얼과 과거 컨스텔레이션의 제품에서 볼 수 있었던 플루티드(fluted) 베젤이다. 39mm 케이스에 담긴 1952년 파이-팬 다이얼을 감싼 플루티드 베젤은 높이 솟은 부분을 부드럽게 처리해 글로브마스터를 유니크하게 보이도록 한다. 6시 방향에서 반짝이는 별은 케이스의 메탈리온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1940년대와 1950년대에 유명 크로노미터 판권 대회가 열렸던 쿠플라(cupola)의 관측소에 수놓인 8개의 별은 오메가가 세운 정확성을 의미한다. 시계 품질에 대해 오메가가 쏟아온 혁신적인 노력의 증표인 것, 메탈리온이 로터와 무브먼트를 완전히 덮지 않도록 디자인해 케이스에 담긴 오메가 코-액시얼 마스터 크로노미터 칼리버 8900/8901의 아름답고 유연한 움직임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지금까지 향자성 무브먼트의 개발과 실리콘 스프링 밸런스의 적용, 코-액시얼 무브먼트의 대량 생산에 이르기까지 스위스 기계식 시장의 발전을 주도해온 오메가는 이제 새로운 고지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 이를 위해 일정 수준 이상의 기계식 무브먼트의 기준이 될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 시스템을 마련하고, 이를 최초로 적용한 글로브마스터를 출시한 것은 다른 브랜드의 이목을 집중시킨 놀라운 사건이다. 스위스 시계 전문가들은 이 인증 시스템이 매출 위주로 흐르는 시장 흐름에 다양성을 부여할 수 있는 계기이자 완성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한다. 스와치 그룹의 핵심 기업이자 시계 산업의 트렌드를 이끄는 오메가가 경쟁이 치열한 기계식 시계 시장에서 리딩 브랜드로서 새로운 비전을 제시했다는 것만으로도 그 의미는 대단하다. 기계식 위치 시계 시장의 가치와 기준을 재정립하는 오메가의 새로운 인증 시스템이 스마트 위치에 위협받는 스위스 위치업계의 새로운 동력이 될 것을 기대해본다. 에디터 배미진(바젤 현지 취재)



## 오메가의 새로운 인증 시스템

### 마스터 크로노미터(Master Chronometer)

오메가가 시계에 선보이는 마스터 크로노미터의 여덟 가지 기준은 매우 높다. 일상생활 환경은 물론 1만5천 가우스의 강한 자기장에 노출되었을 때도 적합한 기능이 유지되는 테스트를 거친 인증 시스템이다. 다른 브랜드들도 METAS의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기 위해 각자의 시스템 테스트를 할 수 있으며, 이 레이블은 해당 기계식 무브먼트의 품질뿐 아니라 위치 자체의 품질을 밟아준다. 이 인증 시스템을 거친 오메가의 새로운 위치 글로브마스터의 등장은 오메가의 시계 품질뿐 아니라 스위스 시계의 퀄리티를 더욱 높여줄 새로운 기준이 될 것이다.

### 인증 절차의 여덟 가지 표준 측정 기준

11만5천 가우스의 자기장에 노출되었을 때 무브먼트의 기능. 2 여덟 가지 위치에서 나타나는 시계 러닝 타임의 편차. 3~2/3파워 리저브 사이에서 나타나는 시계 러닝 타임의 편차. 4 1만5천 가우스의 자기장에 노출되었을 때 시계의 정확성 편차. 5 일일 평균 기준 11만5천 가우스의 자기장에 노출된 시계의 정확성 편차는 하루 0초에서 ±5초 사이를 충족해야 한다. 6 시계를 측정하며 마주치게 되는 일상 환경을 그대로 재현한 테스트 조건에서 시계의 1일 평균 정확성이 기자 위치, 두 가지 온도. 7 외인당하지 않고 자자기로 인한 파워 리저브 기능. 8 시계에 물속에서 테스트한 시계의 방수 기능.

# big Match

시간을 알려주는 기능을 넘어 자신의 취향을 상징하는 특별한 모티브로 자리 잡은 시계. 2015 S/S 컬렉션에서 찾은 키 룩(key look)과 바젤에서 방금 도착한 최신 워치의 믹스 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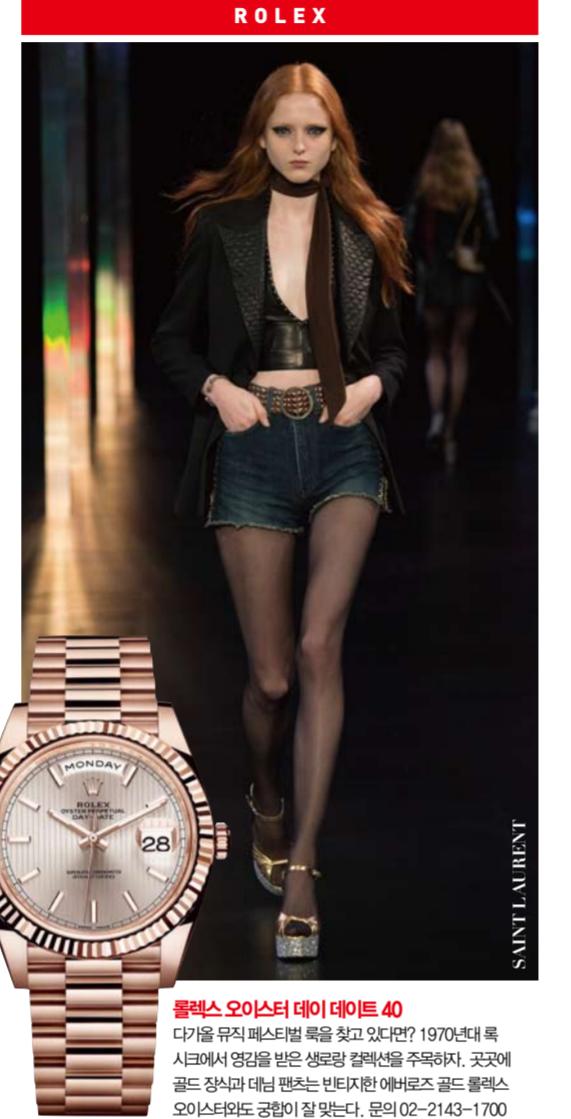
디올 웃거프 캥크 골드 세리에

여성스럽고 우아한 깃털을 디자인에 성별화 표현한 워치. 이번 시즌 디올이 선보인 실크 카드를 반복적으로 레이아웃한 원피스, 레트로 보이 션글러스를 더하면 현대판 디올 레이디로 변신할 것. 문의 02-513-3200



미도 캔터 크로노그래프 칼리 60

클래식과 스포티함이 공존하는 스틸 워치는 디파인 스티일에 나침침 어울려 스포츠한 확률이 적다. 이번 시즌 질 샌드에서 선보인 부드러운 파스텔컬러 패턴 수트에 매치하면 그녀의 데일트 루이 일상된다. 문의 02-3149-9599



로렉스 오스터 데이 데이트 40

다가올 웃거프 레드 루이 일상화 찾고 있다면? 1970년대 루시드에서 영감을 받은 생로랑 컬렉션을 주목하자. 곳곳에 골드 장식과 데님 팬츠는 빈티지한 에버로즈 골드 블랙스 오스터와도 궁합이 잘 맞는다. 문의 02-2143-1700



스와로브스키 시트라 크로노

여성의 미음을 살려내는 핑크. 사설에서 선보인 레더 트위드 재킷에 판타한 와이드 팬츠를 입고 크로스를 세련의 핑크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문의 1661-9060



에르메스 슬림 데르메

돌김이 반진 듯한 색조와 화이트 팬츠의 조화는 럭셔리 캐주얼의 진수를 보여준다. 어제에 모던한 서체를 완성해 심플한 워치를 적용한다면 새롭된 디자인의 럭셔리 시계를 더하면 스타일의 물결이 높아진다. 문의 02-3213-2248 앤디리 김지희



모리스 리크로아 마스터피스 르 클래식 크로노그래프

오랜 시간 갈에 두고 입을 수 있는 크림 컬러 풍 코트, 커먼 컬러 페도와 부츠. 어제 예상의 디자일과 절제된 디자인의 럭셔리 시계를 더하면 스타일의 물결이 높아진다. 문의 02-3213-2248 앤디리 김지희

# Roman Heritage

하이 주얼리와 워치메이커라는 타이틀을 동시에 거머쥔 불가리. 이번 바젤월드에서도 브랜드의 DNA와 워치메이커의 탁월한 기술력이 담긴 워치를 대거 선보였다. 남성 컬렉션은 최첨단 기술을 결합한 워치로 미래를 지향했고, 여성 컬렉션은 불가리 특유의 우아함으로 클래식의 흐리를 보여주었다.



BVLGARI

간 파워 리저브를 갖춘 셀프 웨어링 매뉴팩처 BVL 191 무브먼트와 기존 케이스보다 2mm 줄어난 직경 38mm의 케이스가 특징이다. 옥토 솔로템포 워치는 블루 컬러 레어 디아일과 블루 앤디어 캐스팅 스트랩을, 두 번째 버전에는 블루 디아일과 암체적인 구조의 스테인리스 스틸 링크 브레이슬릿을 적용했다. 미자막으로 실버 톤의 디아일에 18K 핑크 골드 케이스와 브레이슬릿을 사용한 버전은 디아진 세리에가 인상적이다.

여성 컬렉션은 유령 주얼 하우스 브랜드의 전문력을 제대로 드러냈다. 빛의 움직임과 불리는 '루체'와 워치와 블러의 상징이기도 한 '세르펜티' 워치가 바로 그 주제이다. 먼저 루체 워치는 특유의 관동작인 디아일과 불가리의 하이 주얼리의 진정한 정신을 계승한 컬렉션으로, 올해 신보인 컬렉션은 다양한 원석과 기존 33mm, 더 커진 36mm 사이즈로 풍성해졌다. 게다가 블루 사파이어, 보르도 핑크, 파우더 핑크 컬러 등의 야외 기죽을 사용한 컬러 스트랩으로 여성들의 이목을 집중시킨다. 고가 루체나 컬렉션에 주로 사용하던 스테인리스 스틸과 핑크 골드 등 최고급 메탈 소재와 더불어 하이트 골드를 새롭게 접목한 것이 특징이다. 부드러운 광택을 밝히는 하이트 골드 버전은 올해 소개한 신규 모델 중에서도 단연 몰보이는 모델로 꼽힌다. 불가리 특유의 디아일과 함께 디아일 전체를 파비 디아몬드로 세팅한 버전도 선보여 태양처럼 눈부신 빛을 발했다. 불가리의 아이콘으로 꼽히는 세르펜티 컬렉션은 기존 디자인을 새롭게 재해석한 디자인으로 눈길을 끌었다. 비로 헤드-오버-테일이라는 커워드로 마치 뱀이 띠리를 드듯한 인상적인 디자인으로 변화를 꾀했다. 주얼리 하우스 브랜드의 정신이 살아 숨 쉬는 세르펜티 컬렉션은 미끄러지는 듯한 뱀의 유연한 몸매를 골드, 머더오브펄, 레어, 디아몬드 같은 고급 소재를 사용해 표현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뱀의 표피를 표현한 브레이슬릿은 디아몬드 파비 세팅과 레드 레커를 번갈아 사용하며 모두 수준 높은 기술력을 갖춘 정인의 조립, 세공, 조각 등 세심한 작업을 통해 탄생한다.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는 디자인으로 불가리의 상징과도 같은 컬렉션이다. 올해 신보인 세르펜티 워치의 브레이슬릿에는 기존의 내부 스프링을 생략하고 더블 프레서 버튼으로 브레이슬릿 링크를 조절할 수 있게 브레이슬릿의 연장성과 편안한 착용감을 극대화한다. 다른 브랜드에서 쉽게 찾을 수 없는 불가리만의 디자인인 디자인이다. 그 가치가 더욱 높다. 문의 02-2056-0172

1 바젤월드 1,100만 들어가면 암구 촉촉에 불가리의 화려한 부자기 지정고 있다.  
2 우아하고 이롭다. V자 브레이슬릿이 둘보이는 불가리 루체. 3 스마트폰의 보안 솔루션 IT 기관인 워즈파크와 협업해 원상 디아고노 e-미디어 워치.  
4 디자인인 구조. 단순화된 미학이 둘보이는 불가리 옥토. 5 불가리 로마 워치의 탄생 40주년을 기념해 출시한 블랙리 로마 파이-시즈. 6 뱀의 머리가 고리 위로 올라와 디자인을 드는 듯한 형상을 띠는 세르펜티 오브 태일.  
7 세 가지 다른 음색을 띠는 스트라이킹 메카니즘을 적용한 브레이슬릿 블루비옹.



interview  
Stephen Urquhart



1 지난 3월 18일 스위스 바젤 폰 바르타 이트 갤러리에서 만난 오메가 CEO 스티븐 우드.  
2 2007 시리즈에서 영감을 얻어 위트 있는 이름을 붙인 오메가 씨마스터 제이슨 브론리티드  
에디션. 3 바젤 신제품 출 프레스들의 열광적인 호응을 염은 오메가 문 위치 스누피 갤러션.



# the Pioneer of Time

올해 새로운 인증 시스템 '마스터 크로노미터'를 발표하며 바젤의 주인공임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킨 오메가. 이 놀라운 프로젝트를 성공으로 이끈 오메가 CEO 스티븐 우드와의 인터뷰.

01 오메가는 부스의 위치부터 바젤의 중심이자 할 수 있을 정도로 오메가와 바젤, 바젤과 오메가의 관계는 기밀입니다. 오메가에게 바젤월드는 어떤 의미인가? 바젤월드는 언제나 흥미진진한 이벤트이자 오메가가 수구 모두가 매년 봄을 기다리는 이유입니다. 한 해 동안 우리가 어떤 업무를 수행했는지 시계업계와 공유할 수 있는 완벽한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02 올해 바젤에서 '마스터 크로노미터'라는 새로운 인증 시스템을 소개해 뜨거운 반향을 얻었습니다. 새로운 위치를 개발하는 것 외에 인증 시스템을 만드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메가의 인증 시스템에 다른 브랜드가 어느 정도 참여하나? 대비되는지?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 과정을 개발하고 널리 알리는 것은 중요한 미션입니다. 코-액시얼 칼리버 라인과 휙기적인 향자성 기술을 소개한 후, 새로운 인증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메가의 내용은 시계들의 팔리기가 높아져 업계에서 기준에 사용 하던 일반적인 표준으로는 부족하다는 것도 이유가 되었죠. 스위스 계측 연방 연구소 (METAS)와 함께 개발한 새로운 인증 절차는 무브먼트뿐만 아니라 시계 원제품의 방수 능력, 정확도, 그리고 향자성을 보증하기 때문에 오메가의 높은 기준을 충족시킵니다. 시계가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만5천 기우스의 자가정에 노출된 후에도 정상적으로 작동해야만 합니다. 한자리짜리 시계업계에서 이 자성을 견딜 수 있는 타입이라는 오메가가 유일합니다. 다른 시계 브랜드가 떠나면서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하지만, 기준이 충족된다면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 제도가 팔리기를 증명하고 싶은 브랜드의 다음 목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03 새로운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투자한 기관과 비용, 인력은 어느 정도인가? 시계를 개발하는 것에 비해 인증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훨씬 더 많은 노력이 드는지? 시간, 돈, 그리고 인력, 이 세 가지 모두가 개발 과정, 필요한 장비의 구입, 그리고 테스트를 위한 적절한 공간 등 모든 면에서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이 프로젝트와 관련된 모든 이들의 노력이 필요했습니다. 그만큼 이 새로운 인증 시스템이 오메가에 중요한 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04 올해 새롭게 발표한 시계 중 가장 주목해야 할 제품 역시 글로브마스터입니다. 오메가의 기존 고객과 신규 고객에게 이 시계가 어떤 점에서 매력적일 것이라 생각하는지? 글로브마스터는 올해 바젤월드에서 오메가에 가장 중요한 타입피스입니다. 사실, 이 중요한 제품을 바젤월드 시작 바로 전에 특별한 이벤트를 통해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마스터 크로노미터 인증을 받은 타입피스이자, 앞서 말씀드린 끼니로운 절차를 거친 오메가 최초의 타입피스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특별합니다. 초창기 컨стал레이션 모델에 사용한 플루티드 베젤과 파이-판 디자인은 현대 기술과 오메가의 전설과 유산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05 최근 LVMH를 비롯해 패션 하우스들까지 기계식 시계, 스위스 메이드 시계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은 물론 시장을 확장하고 있다. 오렌 엑스를 지난 스위스 워치를 대표하는 브랜드의 수장으로서 이러한 변화를 어떻게 보는지? 혹은 패리티 컨트롤의 기준이 낮아진다거나 스위스 워치의 아이덴티티가 훼손된다거나 생각하시는 있는지? 'Swiss Made' 라벨은 세계 전역에 알려져 있고, 그리고 질문에서 알 수 있듯, 높은 품질을 상징합니다. 저는 많은 브랜드들이 스위스의 매뉴팩처에서 타입피스를 만들기 위해 스위스를 찾는다고 생각하는데, 최근의 트렌드가 오리지널 스위스 브랜드의 명성을 떨어뜨리고 여기에 있습니다. 새로운 브랜드들이 품질 높은 제품을 만드는 전통과 시계학의 유산을 이어받아, 스위스 메이드의 가치를 더 높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6 올해 태그호이어, 브라이틀링 등 몇몇 브랜드가 스마트 워치, 혹은 카페리드 워치를 선보였는데 오메가는 스마트 워치를 출시할 계획이 있는지? 또 스마트 워치가 주류 시장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예상하는지? 스마트 워치의 개발과 발전이 긍정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봅니다. 특히 새로운 디지털 기술과 웨어러블 기기는 흥미를 유발하고, 오메가는 언제나 새로운 기술과 소비 심리를 접목하는 데 열려 있지만, 늘 이를 담고 타이리스한 고품질 워치를 만드는 핵심 미션을 잊지 않고 있습니다.

07 이렇게 다양한 생태계로 변화하는 시계 시장에서 소비자들이 오메가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시계 마니아와 팽창하고 대중화된 소비자의 입장에서 모두 설명해준다면? 시계업계는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의 소비자들은 정보력이 매우 뛰어나죠. 누군가가 좋은 시계를 구매하려고 한다면 시계의 품질, 브랜드의 명성, 그리고 시계에 담긴 혁신적인 기술을 고려할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 감성적인 요소가 제품을 구매하게 하는 결정적인 요소로 작용합니다. 자신의 손목 위에 착용한 모습을 보았을 때 실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런 현상은 일반적인 고객과 워치 마니아 모두에게 볼 수 있습니다. 시계의 품질과 기능은 상대적인 요소와 길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두 가지 요소 모두 구매를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부분이지만, 개인인이 특정 시계를 볼 때 느끼는 감정적인 반응을 고소 평가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에디터 배미진(바젤 현지 인턴)









LONGINES

# Prestige Classic

론진은 스위스 시계 산업의 산증인이라 할 정도로 오랜 역사를 자닌 브랜드다. 2015년 바젤월드에서 소개한 론진 컬렉션에 투영된 오랜 역사의 우아한 멋을 소개한다.



역했다. 1894년 초정밀 VHP(Very High Precision) 무브먼트를 내장한 콘퀘스트, 1990년 아카이즈를 토대로 만든 스틀 소재의 '라 그랑드 클래식', 1930년대 모델에서 영감을 받은 직사각형 케이스의 '돌체 비타', 2007년 론칭한 스포츠 컬렉션 등 디자인을 컬렉션을 구비하고 있다.

대회하기 위해 다이아몬드로 장식했다. 스테인리스 스틀 소재에 블루 무느를 새긴 이 컬렉션은 네 가지 사이즈로 출시된다. 시계는 쿼츠 무브먼트와 함께 블랙, 화이트, 그레이, 그리고 레드 스틀 브레이슬릿으로 구성해 선택의 폭을 넓혔다.

번영 남성 컬렉션은 더욱 클래식한 멋을 풍기다. 론진을 대표하는 모델로 꼽히는 콘퀘스트 클래식은 오랜 시간 동안 사랑받은 풍부한 승마 유산에서 비롯되었디. 1878년부터 시작된 승마에 대한 애정과 위



치마에는 셀프 와인딩 기계식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 L678을 탑재했다. 케이스는 스틀리스 스틀과 블루 & 로즈 골드, 또는 18K 로즈 골드 버전까지 총 세 가지 버전을 갖추었다. 블랙 또는 실버 다이얼에는 슈퍼 러미노바 코팅 9개의 오토리스가 자리하며, 6시 방향에 위치한 문페이즈와 우아한 대비를 이루다. 6시 방향의 12시간 카운터, 9시 방향의 24시간 카운터, 12시 방향의 30분 카운터만 아니라 요일과 달을 표시하는 특별한 기능을 갖추었고, 날짜 또한 표시된다. 500m 방수 기능이며 투명 케이스 백을 적용해 정교한 시계 내부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함께 또 하나의 주력 모델은 의학 시계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한 '펄스미터 크로노그래프'. 세로도고 클래식한 시계에는 심장박동수를 측정할 수 있는 의외의 기능을 담았다. 이는 모험에 대한 인간의 열정을 표현한 것, 론진 특유의 DNA를 반영했다. 기존 펄스미터 컬렉션은 환자의 심장박동수를 체크하기 위해 사용되곤 했다. 그 당시에는 환자의 심박수를 정확히 측정하기 위해 맥박 측정에 60초 이상의 시간을 소요해야 했는데, 새로운 펄스미터 크로노그래프는 보다 높은 정확도를 자랑한다. 크로노그래프 눈금은 심박계와 짙은 흰색을 30초 만에 빠르게 명시해 시계의 효율성 또한 높였다. 직경 40mm 케이스의 화이트 다이얼은 블루 스틀 핸즈와 더불어 블랙 아리비아슈자, 그리고 레드 컬러의 맥박 측정 눈금과 함께 조화를 이룬다. 문의 02-3149-9532.

## 스위스 시계 산증인, 론진

론진은 1832년 스위스 생트리미에 Saint-Imier에서 창립한, 그야말로 스위스 시계 산증인이다. 창립자 오귀스트 아카이즈 (Auguste Agassiz)는 클래식하면서도 심플하고 적당한 가격대의 시계를 선보이는 데 집중해 역대 모국 브랜드에서 10%의 그랑프리와 28개의 금메달을 획득했다. 타임피스 브랜드로도 활동한 론진은 1878년 최초로 1/5초까지 측정 가능한 도구를 만들기도 했으며 1896년 아테네 올림픽 때는 100m 경주 공식 탑재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이처럼 정밀성과 고능력을 함께 갖춘 제품은 이내 회자되며 1899년 아브루치 공식의 복국 팀, 1927년에 칠스 린드버그(Charles Lindbergh)의 대서양 횡단 무착륙 비행 등 많은 모험을 지원하기도 했다. 이렇게 여러 경험으로 쌓인 노하우와 실력이 1931년 린드버그와 공동 개발한 이워 링글 워치나 1960년대에 발표한 전문기용 다이버 워치인 '라크드 다이버'와 같은 명기 개발의 원동력이 되었다. 1960년 쿼츠 무브먼트를 사용한 알은 시계를 생산하기 시작한 론진은 1979년 98mm 두께의 골드 리프, 1982년 3mm 아카이즈 등을 내놓았다. 이후 론진은 기계식보다는 쿼츠 무브먼트를 디자인 시기에 주

## 승마의 역동성을 담은 마(馬) 컬렉션

론진과 승마는 결코 분리할 수 없는 카우드다. 오랜 기간 보여온 승마에 대한 애정은 마(馬) 컬렉션으로 이어졌다. 경마장의 굽은 경주로와 편자를 떠올리게 하는 고선, 높이뛰기 코스 주변 지대에 역할을 하는 등자, 고풍질 기죽 악장을 고스란히 시계에 옮겨놓았다. 승마용품의 등자에서 영감을 받은 네 가지 사이즈로 다양하게 선보였다. 쿼츠 무브먼트의 스틀리스 스틀 케이스는 아카이즈를 세팅한 버전으로 출시되었다. 광택이 나는 블랙 레더와 차개 다이얼은 아카이즈 인테리어로 장식해 우아함을 극대화했다. 로마 숫자 인테리어의 실버 컬러 클리어 다이얼은 다양한 버전으로 변주한 것 또한 특징이다. 둘째 버전은 달콤한 인상에 대한 친화를 담은 컬렉션이다. 부드러운 고선과 기하학적인 라인을 미묘하게 결합한 블랙 버터 컬렉션은 직사각형 케이스의 인테리어를 좀 더 깊게 만들고, 몇몇 모델은 현대적인 우아함과 여성스러움을

1 정교한 브레이슬릿이 매력적인 론진 신피네트, 2 베이스3년의 역사를 담은 론진의 2015 바젤월드 브랜드 컬렉션, 3 승마와 스포츠에 대한 브랜드의 열정을 보여주는 론진 마 컬렉션, 4 매력적인 기각으로 문페이즈 시계를 만날 수 있는 론진 콘퀘스트 클래식 문페이즈, 5 로마 숫자 인테리어와 솔리 컬러의 플린케 디아일, 블루 스틀 핸즈가 클래식한 둘째 버전이다.



# stylechosun .com

평범한 일상 속, 아름답고 환상적인 이야기를 만나고 싶다면 품격 있고 감각적인 매거진 〈스타일 조선일보〉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방문하세요. 〈스타일 조선일보〉는 단순히 럭셔리한 스타일과 정보만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품격과 지식, 럭셔리 그 이상의 취향과 세상을 바라보는 따뜻한 시각까지 힘껏합니다. 〈스타일 조선일보〉가 바로 여러분 가까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클릭하세요.

✓ 과월호까지 리뷰할 수 있는 〈스타일 조선일보〉 E-magazine과 만나십시오.

✓ 뉴스레터를 구독하면 최신 화장품을 선물로 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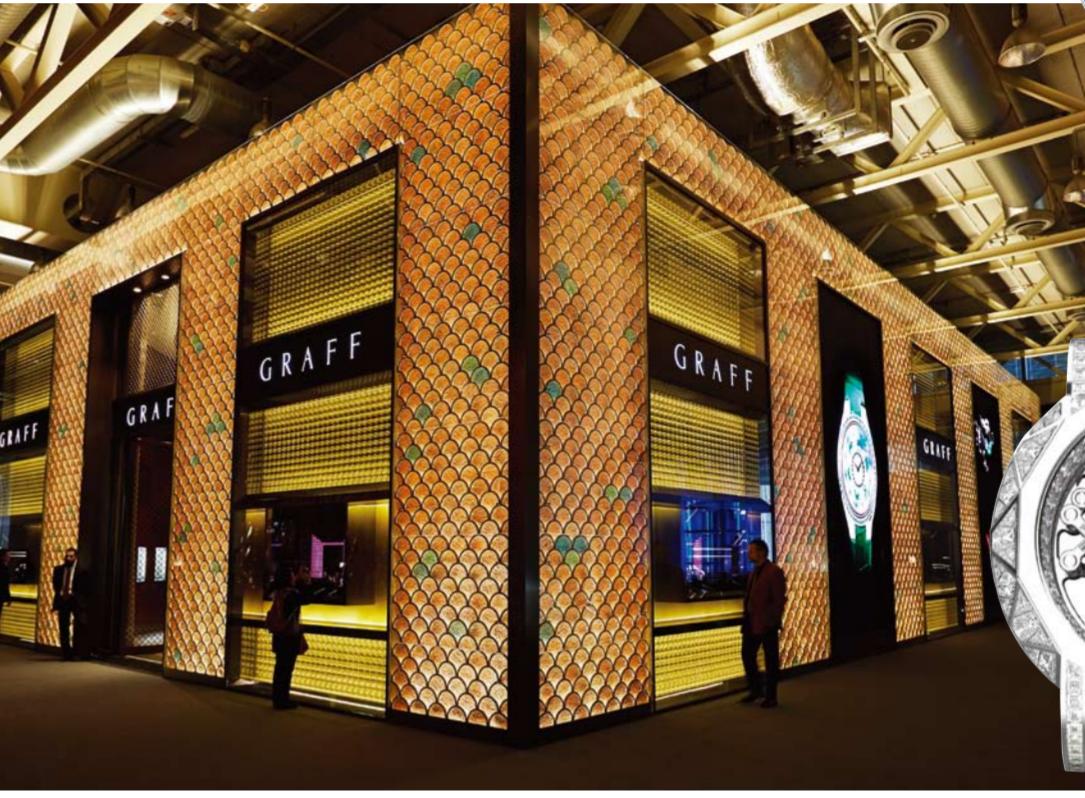
## PLUS

blog.naver.com/stylechosun  
instagram.com/stylechosun

G R A F F

## King of Diamonds

비เซล월드에서 그라프만을 화려하고 값비싼 물값을 자랑하는 브랜드가 또 있을까. 화려한 골드빛으로 장식한 그라프의 부스에 1억원대부터 5백억원대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거대한 다이아몬드 워치와 주얼리가 수백 개나 디스플레이되어 있으니 말이다. 역시 '다이아몬드의 제왕다운 스케일이다. 하이엔드 주얼리 워치의 정수를 보여주는 완벽한 디자인과 정교한 장인 정신이 담긴 보석 세팅 기술, 최고 품질의 다이아몬드는 그라프가 빛나는 이유다.



### 바젤을 수놓은 그라프의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의 제왕'이라 불리는 로렌스 그라프(Lawrence Graff)가 설립한 영국 하이엔드 주얼리 브랜드, 그라프. 진귀한 다이아몬드는 모두 그라프를 거친다는 말이 있는 만큼 전 세계 주요 왕실에서 사랑하는 브랜드이기도 하다. 이러한 명성을 자랑하는 그라프의 주얼리 위치는 독특한 케이스와 다이아몬드가 박힌 크라운, 12시 방향에 위치한 그라프 아이콘 모양의 보석이 특징인데, 그중에서도 완벽한 세팅은 가장 큰 장점이다. 거기에 실제 다이아몬드라는 사실이 놀라울 만큼 어마어마한 크기와 눈부시게 반짝이는 광채는 단연 압도적이다. 그라프는 이번 2015년 바젤월드에서 자사 무브먼트인 그라프 캘리버 5를 장착한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라프 그랑 데이트 듀얼타임 투르비옹'을 주력 시계로 소개했다. 이는 그라프의 첨단 기술력과 아름다운 디자인을 집약한 하나의 아트 피스스와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라프만의 눈부신 광채를 지닌 다이아몬드와 독특한 주얼 세팅 기법이 돋보이는 이 시계는 세 가지 컴플리케이션 기술을 갖추고 있다. 6시 방향에서 신비롭게 움직이는 플라잉 투르비옹, 두 가지 타임 존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듀얼 타임 기능, 그리고 자정에 즉각 작동하는 날짜 변경 기능인 그랑 데이트가 바로 그것. 더불어 럭셔리 위치의 상장답게 모든 부품을 다이아몬드로 완성했다. 또 러그 부분에는 그라프의 상징인 인비저빌 모자이크 세팅과 다이아몬드 디테일을 적용했으며 12시 방향에는 에메랄드를 더한 그라프의 아이코닉한 모티브를 세팅해 고유의 섬세함을 보여준다. 샤퍼이어 케이스 백을 통해 무브먼트에 있는 그라프 아이콘 모티브를 감상할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이다.

### 최고의 자연이 선사한 영감

그라프는 최상의 다이아몬드 원석을 사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브랜드인 만큼 누구보다 다이아몬드를 아름답게 활용



1 웅장한 구도를 자랑하며 하이엔드 주얼리 위치의  
위상을 보여주는 그라프 전시관. 2 그라프 캘리버 5를  
장착해 첨단 기술력과 아름다운 디자인을 구현한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라프 그랑 데이트 블루 타임  
투르비옹. 3 샤퍼이어가 박힌 나비 형상이 시계 내부 모터에  
의해 회전하는 디스크 베터플라이 위치. 4 매혹적인 블로벌  
모티브의 디자인과 다이아몬드 베젤, 선명한 컬러의 루비가  
어우러져 시선을 사로잡는 플로랄 투르비옹 위치. 5 과감한  
디자인과 타임피스 내부를 감상할 수 있는 다이아몬드 마스터  
그라프 스트리밍 타임 투르비옹 스켈레톤. 6 최고 수준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무려 1백52개 이상 사용한 페시네이션.

면 스크린에 광고 영상을 반복적으로 상영할 만큼 그라프가 올해 가장 주력하는 시계 중 하나다. 디아얼 위에 시뿐히 내려앉은 나비 모티브는 다이아몬드는 물론 샤퍼이어, 에메랄드, 루비 등 고혹적인 컬러를 자랑하는 원석으로 세팅한 버전으로 다양화해 더욱 매력적이다.

이제 다이아몬드는 장식용보다 투자 대상에 기깝다. 이를 증명해듯 그라프의 주얼리 피스 페시네이션은 2015년 바젤월드에서 진정한 예술 작품이라 불리며 화제를 모았다. 4백45억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도 놀랍지만 '매혹'이라는 뜻처럼 페시네이션은 최고 수준의 화이트 다이아몬드를 무려 152,96개로나마 사용해 보는 이들의 마음을 단번에 사로잡았다. 워치 중앙에는 시선을 압도하는 38,134개의 D 플로리스 페어 샐프 디자이너들이 자리 잡고 있다. 특히 페시네이션은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주목할 만하다. 중앙에 있는 다이아몬드는 브레이슬릿의 센터피스로, 또는 맞춤 제작 틀에 넣어 반지로도 착용할 수 있으며, 다이아몬드 위치 페이스에 부착해 주얼리 위치로 활용할 수도 있다. 그라프의 정신을 잘 표현한 페시네이션은 세계 슈퍼리치들의 투자 대상 리스트에 오를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듯 보인다. 그저 보는 것만으로도 황홀한 그라프의 주얼리 위치, 내년 바젤 페어에서 그라프가 또 어떠한 경이로운 다이아몬드 위치를 선보일지 기대하게 되는 것 은 당연한 일일지도 모른다. 문의 02-2256-6810



# *the dream* Factory

바젤월드에서 또 하나 빼놓을 수 없는 백미는 바로 시계 공장 투어다. 유서 깊은 스위스 워치메이킹의 현장을 직접 보고 시계 장인과 눈을 맞추며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오직 바젤 시계 박람회에서만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경험이다. 오직 소수의 인원만 초대되어 시계 제작 과정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는 모리스 라크로아 매뉴팩처에 <스타일 조선일보>가 직접 다녀왔다.

혁신적인 타임피스의 세계 모리스 라크로아

비เซล월드에서 버스를 타고 바젤에서 두어 시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세뉴레지에(Saignelégier) 마을에 도착하니, 따스한 정취가 느껴지는 이름다운 풍경을 병풍 삼은 아주 모던하고 현대적인 모리스 라크로아 매뉴팩처가 눈에 들어왔다. 공장이라고는 생각도치 않을 만큼 외부 모습은 물론 내부 시스템까지 현대적인 이곳에는 모리스 라크로아의 핵심인 디자이너, 엔지니어, 설계기사와 워치메이커로 이루어진 모리스 라크로아 아틀리에가 있다. 이들은 브랜드와 기계식 시계의 역사와 전통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새로운 무브먼트와 컴플리케이션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탄생시키는 시계 전문가 그룹이다. 모리스 라크로아의 시계는 독특하게도 아이디어 구상과 디자인 개발이 먼저 이루어진 후 그에 맞게 무브먼트를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이런 저작 방식을 통해 다른 브랜드에서는 볼 수 없는 독보적인 디자인의 시계를 선보일 수 있었던 것. 모리스 라크로아 매니징 디렉터 스테판 웨이저(Stephane Waser)는 “디자인의 혁신을 주도하는 모리스 라크로아의 디자인팀은 총 7명으로, 별상이 칭의적이고 혁신적인 사람들을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보다 신선한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 외부 디자이너와 함께 제품을 구상하고 있습니다”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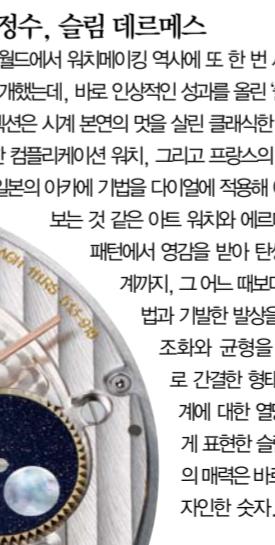
인하우스 무브먼트로 최고의 시계를 선보이다

1961년 조립 공방으로 시작해 전 세계 3천3백 개의 매장을 운영하는 글로벌 워치 브랜드로 성장하는데 원동력이 되어준 것은 모리스 라크로아의 심장이라 할 수 있는 자사 매뉴팩처다. 모리스 라크로아의 독보적인 기술력을 담은 시계는 총 세 가지의 매뉴팩처를 거쳐 완성되는데, 제품을 개발·조립하고 애프터 서비스를 제공하는 세뉴리지에 프로덕션 매뉴팩처와 케이스만 제조하는 켈로즈 케이스 팩토리, 그리고 인동우스 제품의 부품과 무브먼트의 생산이 이루어지는 몽포콩 부품 공장이 바로 그곳이다. 특히 세뉴리지에 프로덕션 매뉴팩처에서는 시계 조립, 커리티 컨트롤, 애프터 서비스 과정까지 모두 장인의 손으로 이루어진다.

어지는 모리스 라크로아의 핵심 공방이다. 동유리로 둘러싸인 내부는 차고등이 풍부해 위치 매뉴팩처로서 최적의 입지를 갖춘 것은 물론, 수백 번의 테스트를 거쳐야 제품으로 유통될 수 있는 엄격한 검수 시스템과 작업에 방해가 될 수 있는 먼지 하나도 철저히 컨트롤하는 깨끗한 위생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이는 모리스 라크로아가 목표로 하는 '최상의 커리어'를 탄생시키기 위한 노력을 엿볼 수 있는 대목. 또 핵심이 밝게 나리쬐는 사방! 공간 안에서는 아주 작은 시계 해도면 비로소 훨이 완성됩니다. 이 공정들은 매우 심도 깊은 정밀함이 필요한 작업이며 이는 모리스 라크로아 매뉴팩처의 오랜 노하우를 엿볼 수 있는 기술입니다." 이처럼 공장 구석구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품 공정을 보여줄 수 있는 브랜드는 그리 많지 않다. 시계는 보는 것보다 직접 체험해보았을 때 진미를 알 수 있듯이 위치메이킹 역시 그 과정을 직접 보면 시계는 단순한 제품 아닌, 오래 역사와 전인적인 혁신을 담은 시계. 그 이상의 가치로 다가온다.

## 뛰어난 기술력과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의 맛

모리스 라크로이는 1백만원대부터 1천만원대까지 기가기대가 다양한 제품군을 보유하고 있다. 14개의 자사 무브먼트를 가지고 있으며, 이런 뛰어난 자사 무브먼트를 정직한 시계를 비교적 합리적인 가격에 판매한다는 것, 더불어 매뉴팩처의 전문성과 시대를 초월한 디자인을 모두 겸비해 여러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것은 이들만의 특별한이다. 모리스 라크로이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시계는 폰토스다. 그리스어로 바다를 자칭하는 이 시계는 정확도 높은 기능과 대중적이면서 스포티함을 갖춘 세련된 디자인으로 모리스 라크로이의 시계리인 중 가장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이번 바젤월드에서는 FC바르셀로나와 협업해 완성한 24개의 FC바르셀로나 폰토스 S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했다. 이는 디자인 혁신과 더불어 젊은 층을 사로잡고 한 발 더 진보하는 모리스 라크로이의 열정이 담긴, 올해 가장 재미있고 큰 이슈가 된 워치 컬렉션이다. 국내에는 11월부터 한정판으로 출시한다고 하니 놓치지 말 것. 문의 02-3218-2248 에디터 권유진 (바젤 현지 취재)



# Infinite Passion

르메스는 명실공히 극강의 브랜드다. 워치메이킹 기술 또한 그렇다. 이번 바젤월드에서는 그러한 에르메스의 DNA를 스란히 전달받아 감성이 돋보이는 아트 피스로 여겨질 만한 제품을 소개했다. 특히 다양한 기능과 매혹적인 소재, 그리고 고난도 기법을 더한 슬림 데르메스 컬렉션은 에르메스의 새로운 얼굴이 될 것이 분명하다.

## 0여 년이 넘는 에르메스 워치의 역사

에르메스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바로 전통이다. 오랜 시간 쌓아온 수많은 아이브와 전통은 에르메스가 현재까지도 궁극의 브랜드로 꼽히는 이유다. 품 브랜드인 에르메스는 이미 80년 넘는 위치메이킹 역사를 지니고 있으며 그간 치킨이나 스위스에 시계 공장을 건립한 전진한 위치메이킹 브랜드다. 2009년 아심차게 선보인 무브먼트 H1은 시계에 텁자하지 않고 미비한 점을 보완하기 위한 재분석에 들어가 수많은 연구를 거친 후 탄생했다. 이것만 봐도 에르메스가 얼마나 위치메이킹에 진지하게 임하는지 알 수 있다. 2010년 에르메스는 그간 출시한 18개 라인을 케이프 코드(Cape Cod), 아씨(Arceau), 아이워(H-Hour), 드레사지(Dressage), 익셉션널 타임피스(Exceptional Timepiece) 등 5개 라인으로 정리했고, 무브먼트 개발에도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일부 기계식 시계에는 무브먼트 제조사 보舍(Vaucher)와 협력 생산 H1837, H1912, H1925와 같은 에르메스만의 무브먼트를 사용한다. 최근에는 미셸 파르미지아니(Michel Parmigiani)가 창립한 파르미지아니 플라워(Parmigiani Fleurier) 신하 무브먼트 제조사로, 파르미지아니 시계는 모두 에르메스가 제작한 가죽 줄을 사용하는 만큼 최고를 자행하는 두 브랜드 간의 상생 관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 르메스 워치의 정수, 슬림 데르메스

HERMÈ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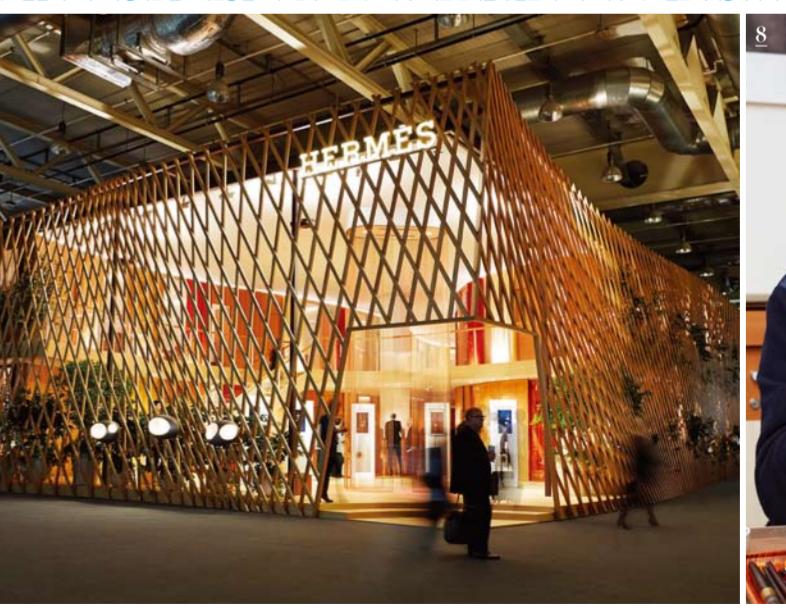


년을 조정할 필요가 없는 퍼페추얼 캘린더 모델은 천  
자기와 시금석으로 장식한 3시 방향의 문페이즈를 함  
장착했으며, 6시 방향에는 듀얼 타임 기능도 갖추었다.  
초 무브먼트를 사용한 32mm와 25mm 모델은 블랙 커  
트, 클리어드 화이트, 사파이어 블루 등 새로운 컬러 팔  
트의 악어가죽 스트랩으로 선보인다. 그 밖에 기존의 앰  
에트루스칸, 엘리펀트 그레이 컬러와 브레이슬릿 버전도  
비되어 있다. 슬림 데르메스는 로즈 골드와 스틸 두 가지 케이스에 베젤에  
아이온드를 세팅한 버전, 그리고 일반 버전으로 선보인다. 로즈 골드 케이  
의 경우 기요세 패턴을 부조한 천연 화이트 자개 다이얼을 장착했다. 이에  
해 에르메스는 특유의 예술적인 감성을 심ப한 발휘해 또 하나의 아트 피스를  
성했다. 바로 '슬림 데르메스 퍼스페ქ티브' 커빌리에다. '기수의 시점'에서 바  
본 독특한 해석에서 비롯된 이 모델의 특징은 상르베 에나멜 테크닉을 사용  
다이얼이다. 'Hermès Paris'라는 글자를 2차원적으로 재해석해 800°C가  
는 고온에 노출시키고 매혹적인 컬러를 위해 미처 예술 작품처럼 시계 다이  
얼에 아름답게 배치했다. 블루, 레드, 옐로, 그리고 화이트로 구성된 이라인  
컬러별로 6개씩 한정 수량으로 출시하며 750 화이트 골드 케이스와 올트  
신 메뉴팩처 에르메스 H1950 무브먼트를 탑재된다.

## 제르메스의 예술적 영감, 아트 피스

르메스의 DNA이기도 한 예술적인 감성은 섬세한 기교를 결합한 작업을 통  
세상에 단 하나뿐인 창조물을 내놓았다. 미치 방금 동화 속에서 빠져나온  
한 '케이프 코드 지브라 페가수스'의 다이얼은 격조 높은 인그레이빙과 그랑  
에나멜링의 고전적 예술의 조우를 실현했다. 그랑 푸 에나멜링 기법은 얼  
밀의 미니어처 페인팅에서, 그리고 클루아조네 에나멜링 기법은 페가수스  
날개에서 특히 둘보인다. 다이얼은 알리스 설라가 디자인한 에르메스 실크  
카프의 모티브를 담았으며 각기 다른 컬러 팔레트의 네 가지 버전으로 선보  
다. 다이얼 제작은 얼룩말과 날개의 깊이 차이를 표현하기 위해 약 22개로  
골드 펄을 세 겹의 층으로 얹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 뒤이어 정교한 인그  
레이빙 작업을 하는데, 그레이버로 날개의 세밀한 깃털을 묘사하는 치밀한 작  
이 끝나면 클루아조네 기법을 사용한 에나멜링 작업이 시작된다. 에나멜링  
업을 위해 장인은 아주 섬세한 손길로 금 와이어를 얹어 반투명한 에나멜  
채를 공간의 테두리를 만든다. 800°C 이상 고온의 기마에서 구워내는 에  
나멜은 수차례의 기열과 식음을 반복하고 나면 절묘한 색감이 모습을 드러낸  
다. 인그레이빙과 에나멜의 조화가 이끌어낸 풍부한 컬러와 빛의 영동함, 그  
리고 깊이감이 어우러져 내는 시각적 효과는 미치 살아 있는 얼룩말을 보는  
한 생동감마저 불러일으킨다. 케이프 코드 얼룩말 페가수스의 다이얼은 예  
상에 걸맞게 750 화이트 골드 케이스로 제작했으며, 에르메스 마뉴팩처의  
1837 무브먼트를 텁자해 기계식 시계와 감성이 어우러진 또 하나의 작품을  
선보인다.

얼 캘리더와 듀얼 타임을 함께 팀지어 주목받은 슬림 데르메스 퍼페추얼 캘리더, 2 새로운 타이포그래피의 인덱스를 적용한 슬림 데르메스 39.5mm, 3 우아한 여성성을 위한 슬림 쿼츠 스틀 & 디아몬드, 4 에르메스의 실크 스카프에서 영감을 받은 슬림 데르메스 퍼스펙트브 커빌리에, 5 인그레이팅과 에너멜링의 정수를 염두 수 있는 케이프 코드 자브라







# Crystal World

비겔월드의 훌 1.에서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리기면 중앙 장면에 화려하게 빛나는 크리스탈 왕국이 있다. 전체 부스를 크리스털로 장식해 매년 가장 크고 화려한 부스 디자인을 선보이는 스와로브스키는 올해에도 역시 패셔너블하고 아름답게 반짝이는 위치 컬렉션과 주얼리를 대거 출시했다. 브랜드 이름 자체가 크리스털을 상징하는 고유명사로 어거질 정도로 크리스털 제조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스와로브스키의 2015년 크리스털 월드로 초대한다.



## interview Nathalie Colin

01 최근 스와로브스키는 위치뿐 아니라 전 제품에서 패션 브랜드를 능가할 정도로 다양한 컬렉션을 선보이고 있다. 칭의력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저는 다양한 곳에서 영감을 받는데, 그중 여행을 하며 느끼고 보는 자연은 끝없는 영감의 원천입니다. 이번 F/W 컬렉션의 주제는 원터 가든(winter garden)으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정원에서 영감을 받아 탄생했습니다. 이번 컬렉션은 두 가지 테마로 나누는데, 첫 번째는 영국식 디자틱을 상징하는 보티지 테피스트리, 데보레 별벳, 여성스럽고 낭만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레이스 등 자연의 아름다움을 표현한 다양한 패브릭과 패턴에서 영감을 받았죠. 그리고 두 번째는 도시의 정원에서 영감을 받아 유기적이면서도 관능적인 컬렉션을 완성했습니다.

02 시계를 포함해 이 방대한 컬렉션을 선보이기 위한 디자인팀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아시아, 유럽, 미국 등 전세계 22개 국가에서 온 25 명의 디자이너와 함께 작업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창의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를 자닌 감각적이고 재치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를 덕분에 언제나 차별화된 컬렉션을 선보일 수 있는 것 같아요.

03 올해는 트렌디하고 패션블루한 시계를 선보이는 것과 큰 변화라고 했는데, 소파와 걸러, 디자인 등에서 스와로브스키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디테일을 설명한다면? 스와로브스키 시계의 모든 매일 착용 할 수 있는 디자인을 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스와로브스키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은 크리스털의 활용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저희는 시계를 디자인할 때 처음부터 크리스털을 염두에 둡니다. 스와로브스키의 위치 컬렉션을 통해 크리스털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는 것 이 저희의 가장 큰 매력이라고 생각합니다.

04 이번에 새롭게 출시한 아일리 데이 더블 투어 위치에서 볼 수 있는 스와로브스키의 매력은 레이어링과 미스 매치라고 생각된다. 스와로브스키 위치를 가장 매력적으로 스웨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제작해왔습니다. 시계는 하나의 완벽한 브레이슬릿이자 액세서리입니다. 시계는 그 자체로 패션 소품이기 때문에 하나만으로도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만, 한쪽 손목에 주얼리처럼 다른 브레이슬릿과 미스 매치하면 트렌디한 룩을 연출할 수 있어요. 걸러 틈이나 소파가 노출한 제품을 매치하면 감각적인 스타일을 완성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착용한 것처럼 스털워치에는 매일 뱅글을, 가죽이나 새틴 스트랩 위치에는 유연한 가죽 브레이슬릿을 매치하는 식으로 말이죠.

05 매일 확장할 만큼 애정을 갖고 있는 위치를 품는다면? 올 하반기 출시 예정인 크리스털 브레이슬릿입니다. 케이스에 1천7백 개의 크리스



들이 기득한 이 시계는 곡선형 케이스에 가지고 간 실루엣에서 느끼지는 우아한 매력을 부여하며 눈길을 사로잡기에 충분하죠. 또 다섯 가지 컬러로 출시되며 그글그글의 룩과 느낌을 갖게 고를 수 있다는 점도 매력적에요.

06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바젤월드에 참가한다는 것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 물론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로서 이런 멋진 크리스탈 왕국을 방문한다는 자체가 굉장히 흥분되는 일인 겁니다. 그중에서도 제가 바젤월드를 통해 얻는 가장 큰 수확은 세계 각국에서 온 기자들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점입니다. 각 나라를 대표하는 기자들과 저의 영감, 컬렉션, 비전 등에 대해 공유하고 스와로브스키의 철학을 알리는 일을 바젤월드에서 할 수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너무나 큰 매력입니다.



**바젤월드의 주인공이 되다**  
2009년 바젤 페어에서 스와로브스키가 첫 위치 컬렉션을 선보인다고 발표했을 때, 많은 시계 전문가와 관계자의 궁금증은 가히 폭발적이었다. 세계 최고의 크리스털 패션 주얼리 브랜드에서 어떤 위치를 만들어낼지, 어떤 디자인의 패션 위치를 만들지에 대한 기대감과 함께 우려 섞인 목소리 또한 들려온 것. 하지만 그러한 우려와는 달리 스와로브스키는 지금까지 6년 동안 크리스털을 더한 혁신적인 디자인과 스위스 메이드 위치의 정교한, 전문성을 갖춘 위치 컬렉션을 매년 출시하며 패션 주얼리 워치로서의 포지셔닝을 견고히 하고 있다. 어찌면 여성들의 극적이고 반짝이는 순간을 기록하는 스와로브스키의 위치 컬렉션의 출시는 필연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이처럼 정통적인 시계 브랜드가 아님에도 바젤월드에서 주목받을 수 있었던 이들의 원동력은 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파악한

고 최고 품질의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브랜드의 목표와 철학이다. 스와로브스키 위치 컬렉션은 세련되고 모던한 여성성을 모티브로 삼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즉 비즈니스 루과 이브닝 룩에 완벽하게 매치할 수 있는 패션 위치를 지향한다. 스와로브스키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니탈리에 콜린은 스웨덴 조선일보와 나눈 인터뷰에서 “저는 일상생활에서 만나는 모든 여성을 위한 디자인을 하려고 노력합니다. 현대 여성들은 직장에서는 프로페셔널한 커리어 우먼의 역할을, 가정에서는 완벽한 엄마의 역할을 하기 위해 매일 고군분투하죠. 그러면서도 항상 아름다움을 유지해야 해요. 저에게 이런 모든 현대 여성들이 뮤즈이고, 그녀들을 위해 디자인하고 새로운 제품을 만들고 있어요. 또 그들의 일상생활에 스와로브스키의 아름다운 제품으로 스파클링한 포인트를 더해주는 것이 저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라고 자신의 디자인 철학에 대해 설명한 바 있다.

### 실용적이고 스타일리시한 코드를 담다

올해 스와로브스키는 다섯 가지 새로운 시계 라인과 함께 베스트셀러 아이템을 리컬러링해 선보였다. 이번 신제품의 공통점은 모던한 룩에서부터 페미닌하고 우아한 스타일까지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웨어아블하고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이 눈에 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다른 주얼리나 액세서리와 밀착 매치할 수 있는 감각적인 컬러와 소재는 아름다운 디자인과 더불어 실용성을 중시하는 스와로브스키의 모토를



두고 디자인하는 것이 특징이다. 스와로브스키만의 시그니처는 크리스털 패브리, 보는 이를 매혹시키는 크리스털 메시 스트랩, 패션팅 크리스털, 세라믹 베젤로 표현해 스와로브스키만의 전문성을 보여준다. 특히 스와로브스키만이 표현해내는 광채의 진가는 케이스에 1천7백 개의 크리스털을 세팅해 절대적인 화려함을 자랑하는 ‘크리스털린 오벌’ 위에 1백5기의 투명 크리스털을 세팅한 ‘옥테아 드레시’에서 여실히 확인할 수 있다. 이 두 제품 모두 올 하반기에 출시할 예정이니 기대해도 좋다. 문의 1661-9060  
에디터 권우진 (비셀 현지 취재)



1, 2 전면을 크리스털로 장식해 화려함의 극치를 자랑하는 스와로브스키의 부스. 3, 10 라운드 파파라치 베젤과 케이스 내부의 상세한 크리스탈 파파라치 베이스보드는 옥테아 드레시. 4 손목이 움직일 때마다 화려하는 16개의 스와로브스키 지르코니아 원석이 매력적인 레일리 크리스탈 컬렉션. 5 밝은 시트린 컬러 스트랩이 신뜻하고 모던한 데일리 타입. 6, 7 스와로브스키의 부스에서는 수백 개에 달하는 위치 주얼리 신제품과 스와로브스키의 하스토릭한 코드를 담아 디자인 액세서리와 함께 라이팅할 수 있는 아일리 데일리. 9 천7백 개의 크리스털로 장식해 화려한 빛깔이 눈길을 사로잡는 크리스탈린 오벌.

# be Gentle

올해 바젤월드에서는 디자인과 성능, 합리적인 가격까지 갖춘 엔트리 위치가 대거 출시되었다. 뛰어난 스위스 메이드 무브먼트를 장착한 시계를 매력적인 가격대에 구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기계식 시계를 처음 구매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도, 사회 초년생의 앞길에도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줄 엔트리 위치 리스트.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에르메스 슬림 테르메스 GM 얇고 섬풀한 디자인의 특징의 티운피스, 루브르의 아트 컬렉션 담당 그랑 피 디자이너인 폴리 아펠로이가 개발한 새체를 사용했다. 모던한 아날로그 디스플레이를 사용해 기존 성을 고집하고, 6.6mm의 올트라-신 무브먼트를 탑재하는 절호의 매력이다. 문의 02-348-0728 **크로노우스 시리우스 빅 데이트 스틸 세이드** 12시 방향의 커다란 데이트 창과 6시 방향의 스물 세컨드가 특장인 위치. 크로노우스 제품 중에서 꾸준히 사랑받는 클래식 스타일로, 스몰 세컨드 내부의 기록에 태운이 늘을 끈다. 심플하면서 오래 촉동할 수 있는 스트리밍 디스플레이를 선호한다면 안성맞춤이다. 문의 02-310-1737 **볼거 로마 퍼시픽** 브라운 퍼시픽은 투명방울, 로마 투보 가스와 함께 볼거 퍼시픽 탄성 40주자를 기반하는 스몰 세컨드 타임피스. 41mm 스틸 케이스로 조절된 셀프 워킹 매뉴팩처 페카컬 무브먼트를 탑재했다. 65시간 파워 리저브가 가능하며 배젤에 새긴 로고 디자인을 인정해주다. 문의 02-2056-0172 **볼거 수상 테두리** 티스의 고향인 스위스 르로를의 거리 이름을 따서 명명한 위치. 티스의 역사와 함께 할 수 있는 재래으로, 37mm 크로노그래프 기능, 로마 숫자 인덱스가 눈길을 끈다. 가장 학제적인 가격의 기계식 시계를 원하는 이들에게 추천한다. 문의 02-3467-8795 **브레카 퀸즈 5177 브라운의 베스트셀러인 클래식** 5177의 뉴 버전. 실버 꿀풀 디자인은 블루는 드물고 파리 패션을 주목하는 팬에게는 절호의 선택이다. 블루은 기계로 쉽게 조율할 수 있는 브레이저 위치에서에서도 멀리 끌어온 드로우인 만큼 깊은 기까이 디자인을 갖는 가격대가 매력적이다. 문의 02-348-6218 **론진 콘페트 퀸즈 클래식 문레이즈** 클래식한 아름다움의 정식으로 손꼽히는 론진의 대표 위치. 고급 스트리밍 스타일의 우수성을 달은 시계로, 학제적인 가격에 문레이즈를 적용해 끌어안은 기분을 뿐만 아니라 티스의 고향인 스위스 스틸 2년 전 글로로 출시했던 에 퓨어의 브로운 타임피스. 12시 방향에 9시한 기본은 컷 퍼시아 가동부이며 3시 9시 퍼시아를 표시해 고급 디자인을 강조했다. 심플하면서 세련된 스티일의 시계를 찾고 있는 남성에게 추천한다. 문의 02-3213-2246 **볼거 쿠풀 클래식 로즈 골드 케이스와** 상파이 컬러 디자인은 포인트인 위치. 804g 금 파워 리저브가 가능해 세컨드 위치를 구입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제격이다. 드크 브라운 레더 스트랩과 간결한 인테그리티인 디자인은 새하얀면서도 끈기 있는 디자인이다. 문의 02-3149-9582 **에디터 베이징, 징자체** 미들에 어려워하지도 제나. 시선 스트리밍 퍼시픽 브라운, 내비 노트 패션 브라운에 어르매침도 제나.



스마트워치 유형의  
아이스틴의 이색적  
새로운

현장 사진

스마트워치 유형의  
아이스틴의 이색적  
새로운

현장 사진



## High-Tech Drama

라도의 강점이란 단연 소재다. 이번 2015 바젤월드에서 라도는 새로운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을 선보이며 또 한 번 미래 지향적이고 혁신적인 브랜드임을 입증했다. 특히 이번 라도 컬렉션에서는 다양한 컬러를 구현했다. 초콜릿을 닮은 브라운 컬러와 실버 컬러의 초경량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까지. 라도는 이번 바젤월드를 통해 현대적 연금술을 실현해냈다.

### 라도의 신장, 최첨단 소재

리도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은 최첨단 소재를 시계에 최초로 도입했다는 사실이다. 지금은 많은 시계 브랜드가 배젤이나 케이스에 세라믹을 도입 하지만, 그 시초는 라도였다. 라도가 세라믹 소재를 시계에 처음 도입한 것은 1986년으로, 인테그럴(Integral) 컬렉션을 통해 처음 소개됐다. 특히 소재에 관심이 많은 라도는 1962년 히드 메탈을 채용한 세계 최초의 스크래치 프루프 시계인 디아이스터(Diastar)를 내놓았고, 1986년 시계업계 최초로 하이테크 세라믹을 이용한 인테그럴을, 2004년 디아이온드와 같은 경계를 자랑하는 디아이온드 하이테크 세라믹을 V10K 컬렉션에 적용하는 등 라도는 신 소재 개발에 앞장선는 스위스 시계업계의 중요 브랜드다. 최상의 디자인과 세라믹을 비롯한 혁신적인 소재의 융합으로 탄생한 라도의 시계들은 미적 수준이 높은 데다 뛰어난 창동력을 자랑한다. 2009년 영국의 유명한 산업 디자이너 재스퍼 모리슨(Jasper Morrison)이 디자인 작업에 참여한 15.5 시리즈를 발표한 것을 시작으로 보다 고도의 디자인을 선사해온 데 대한 기대감을 끌었다. 2012에는

골드 톤의 세라모스를 만들어내는 등 디자인과 소재 개발 면에서 일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냈다. 이처럼 소재와 디자인 면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라도는 무려 30여 개의 국제적 디자인상을 수상했는데, 2000년대 들어 8개의 모델을 2백70여 개로 정비하는 등 브랜드의 정체성을 더욱 확고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 놀라운 반전, 메탈 컬러 세라믹

라도의 소재 혁신을 염두에 있는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은 미래 지향적인 메탈 컬러의 하이테크 세라믹을 말한다. 같은 하이테크 세라믹이지만 앞에 플라즈마라는 단어가 덧붙은 이유는 제작 과정에서 라도의 전매특허 공정인 플라즈마 공정을 통해

컬러를 변화시켰기 때문이다. 이전까지 하이테크 세라믹은 블랙과 화이트 단 두 가지 컬러만 지원 가능했다. 그러나 라도는 1998년 플라즈마 컬러의 세라미카(Ceramica) 모델을 선보이며 하이테크 세라믹의 컬러 팔레트에 다양성을 부여했다. 플라즈마 공정은 화이트 하이테크 세라믹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고온의 오븐에 구워낸 소재를 정성으로 냉각시키기 전에 이뤄진다. 소나팅 정성은 끝낸 후 풀리싱 단계로 남아기기 전에 이뤄진다. 소나팅 정성을 끝낸 세라믹 파트를 진공 용기에 넣고 20,000°C의 열을 가하면 공기 중의 메탄과 수소가 활성화되는데, 이들이 분자로 접두되어 주변의 세라믹 조각들과 반응한다. 이때 탄소가 발생하여 신한 자르고는 세라믹 표면에 있던 산소를 밀어내고 탄화 자르고는 막을 형성하면서 플라즈마 컬러로 변한다. 이렇게 탄성화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은 언뜻 스테인리스 스틸과 비슷하지만 좀 더 깊고 진한 컬러감으로 기쁨을 더해주며 시간이 지나도 처음과 같은 광택감을 유지한다. 또 컬러만 변화했을 뿐 하이테크 세라믹의 성질을 그대로 지니고 있어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 또한 기법과, 스크래치

1라도 하이테크 플라즈마 디아이온드 리미티드 에디션, 2스위스의 이언먼트리카 느끼는 초콜릿 브라운 하이테크 세라믹, 3다이아몬드 디아이온드, 4초경량 위치의 대표 주인 S3N4 하이테크 세라믹, 5리도 고유의 매력을 모두 담은 하이테크 오토마티크 크로노그래프 티카미디, 6세라믹 라도의 신상 디자인 브랜드의 기준을 드러내는 혁신적인 소재다. 7꾸준히 신소재 개발에 투자하는 라도는 매년 다른 브랜드에서 볼 수 없는 신제품을 선보일뿐더러 초경량이라는 측면에서 리강 브랜드의 자리를 굳건히 차고 있다.



6

7



라도의 마법, 현대적 연금술  
이번 바젤월드에서 라도는 다양한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를 소개하며 현대적 연금술을 재현해낸다. 그중 가장 주목 해야 할 모델이 바로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 위자로, 이 전보다 더욱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이 특징이다. 대표적인 모델로는 타이미터 기능을 추가한 '하이파크를 오토마티크 크로노그래프 티카미디'와 기존에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디얼을 장착한 '다이아몬드' 그랜드 세컨드, 그리고 배젤을 다이아몬드로 화려하게 수놓은 '하이파크를 다이아몬드 리미티드'에 디션 등이다.

이번 바젤월드에서 라도를 살망하는 키워드는 바로 '컬러였다. 지금까지 세라믹 소재의 특성상 블랙 또는 화이트 컬러로 제조할 수 있었던 반면, 이번에 개발한 라도의 신소재는 초콜릿을 닮은 브라운 컬러와 실버 컬러의 하이테크 세라믹 위치를 발표해 보는 이들의 관심을 단번에 집중시켰다. 스위스를 상징하는 두 얼굴, 초콜릿과 실버를 합쳐 하이파크 컬렉션에 초콜릿 브라운 하이테크 세라믹 모델을 추가한 것이다. 몇 년간의 연구 결과를 통해 새로운 컬러에 대한 기쁨을 느끼는 라도는 브라운 컬러의 세라믹을 제작하게 되었고, 다른 브랜드에서 선보인 브라운 세라믹은 달리 라도의 초콜릿 브라운 하이테크 세라믹은 빛의 양과 각도에 따라 컬러감이 달라 진다는 특징이 있다(간혹 빛에 기까이 노출될수록 브라운 컬러가 신연해진다). 스위스를 초콜릿 천국으로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한 스위스 정통 초콜릿 명가 메트르 쇼콜리에(Maitres Chocolatiers)의 시그니처 컬러이기도 한 이 브라운 세라믹은 부품 위치에 따라 매끈하게 또는 매트하게 제작해 감도를 높였다. 초콜릿 컬러로 제작한 하이파크 컬렉션은 3종 3개의 모델로 구성된다. 우선 남성 컬렉션인 '하이파크 오토마티크 크로노그래프 티카미디'와 여성 컬렉션 '하이파크 오토마티크 디아이온드' 모델로 각각 9백99개, 6백 개로 한정 판매된다.

올해 바젤월드에서 가장 대중적인 관심을 받은 시계는 단연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과 초콜릿 브라운 컬러의 하이테크 세라믹 모델이었다. 하자만 감각이 남다른 트렌디세티들은 하나같이 하이테크 S3N4를 꼽았다. 모두 가장 라도 스탠다드 꽝한 한 모델이다. S3N4는 실리콘 나이트리아드(silicon nitride), 즉 질화규소의 원자기이다. 강도가 높고 내구 충격성이 탁월해 고온 구조용 세라믹 소재로 포뮬러 원의 경주용 자동차 부품 소재로 활용된다. 하이테크 세라믹보다 더 높은 1,450비커스(Vickers)의 경도로, 스크래치에 매우 강하며 면적당 무게가 3.4g/cm<sup>2</sup>에 이지지 않아 경량성 또한 우수하다. 이번에 선보인 하이테크 S3N4는 케이스부터 브레이슬릿까지 모두 마트 그레이 컬러의 S3N4 하이테크 세라믹 소재로 제작했으며 우브먼트의 브리지 소재도 블랙 일부를 놓고 사용해 시계 전체 무게가 단 85g에 불과하다. 또 우브먼트를 수정해 파워 리저브를 64시간으로 늘렸기 때문에 용두를 감아야 하는 불편함도 줄어들었다.

다이아몬드를 사용한 여성 컬렉션은 강한 경도에 집중한 듯 보인다. 디아이온드의 강아동과 우아함을 동시에 자닌 모델인 하이테크 플라즈마 디아이온드 리미티드 에디션과 디아이마스터 플라즈마 디아이온드 리미티드 에디션 이 바로 그 주인공이다. 라도 하이테크 플라즈마 디아이온드 리미티드 에디션은 디아일업에 블랙 블록 끌려 컬러의 배젤에 56개의 디아이온드, 디아이마스터 플라즈마 디아이온드 리미티드 에디션에는 로즈 골드 배젤에 72개의 디아이온드가 세팅되어 있다.

시계뿐만 아니라 사용한 보석에 대해서도 보증서를 제공하는 라도는 이 시계에 에도 최상급 웨일팅 VVS 디아이온드 0.834캐럿에 대한 보증서를 발급해 품질에 대한 자부심을 드러냈다. 또 우아하고 기품 있는 메탈lic 향기의 플라즈마 하이테크 세라믹은 배젤과 헌즈의 로즈 골드 컬러와 대비된다. 투명한 케이스 백을 통해 블랙 오닐리아 턱터를 비롯해 오토마티크 우브먼트의 움직임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블랙과 화이트 세라믹 모델도 출시해 컬러 선택의 폭을 넓혔다. 문의 02-3213-4168



8

9

10

# dynamic Dand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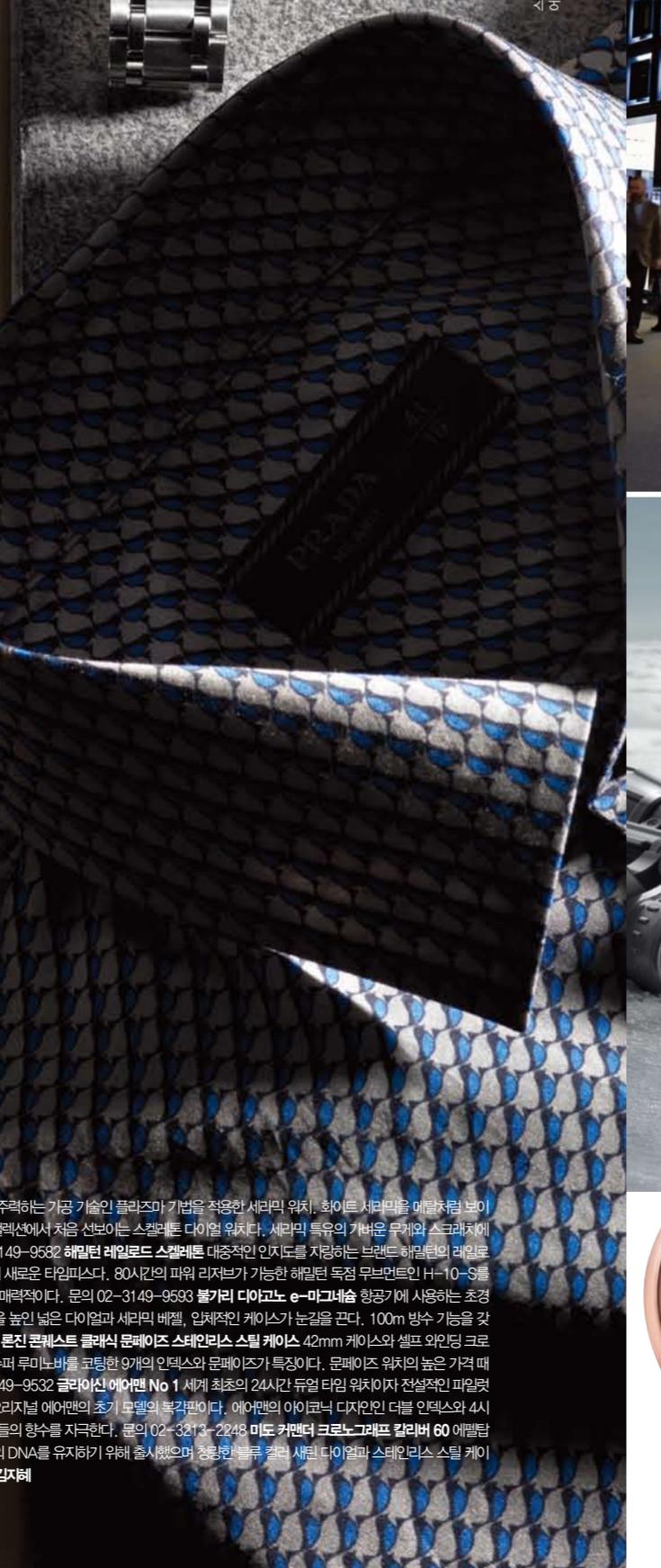
누구보다 빠르게 최신 위치를 접할 수 있는 바젤월드에서 올해 주목해야 할 시계를 선택한다면? 활동적인 얼리어답터 남성들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구성으로 퍼스트 위치의 가치를 충분히 갖춘 엔트리 위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스티얼리스트 유리정  
이시스트 아워풀  
티쏘



누구보다 빠르게 최신 위치를 접할 수 있는 바젤월드에서 올해 주목해야 할 시계를 선택한다면? 활동적인 얼리어답터 남성들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구성으로 퍼스트 위치의 가치를 충분히 갖춘 엔트리 위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누구보다 빠르게 최신 위치를 접할 수 있는 바젤월드에서 올해 주목해야 할 시계를 선택한다면? 활동적인 얼리어답터 남성들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구성으로 퍼스트 위치의 가치를 충분히 갖춘 엔트리 위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누구보다 빠르게 최신 위치를 접할 수 있는 바젤월드에서 올해 주목해야 할 시계를 선택한다면? 활동적인 얼리어답터 남성들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구성으로 퍼스트 위치의 가치를 충분히 갖춘 엔트리 위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누구보다 빠르게 최신 위치를 접할 수 있는 바젤월드에서 올해 주목해야 할 시계를 선택한다면? 활동적인 얼리어답터 남성들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구성으로 퍼스트 위치의 가치를 충분히 갖춘 엔트리 위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누구보다 빠르게 최신 위치를 접할 수 있는 바젤월드에서 올해 주목해야 할 시계를 선택한다면? 활동적인 얼리어답터 남성들을 위해 합리적인 가격과 뛰어난 구성으로 퍼스트 위치의 가치를 충분히 갖춘 엔트리 위치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Innovative Expert

티쏘의 강점은 단연 기술력이다. 실상 활동은 물론 극한의 상황에서도 완벽한 기능을 지원하는 티쏘의 시계에 접목한 수많은 기능을 나열하기만 해도 숨이 가쁠 것이다. 이번 바젤월드에서 티쏘는 브랜드의 유산을 드라낸 럭셔리 라인과 스포츠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담은 스포티 라인을 선보였다.

## 전통과 혁신을 더한 실용성

1백62년이라는 깊은 역사를 자랑하는 전통적인 스위스 브랜드 티쏘는 '전통과 함께하는 혁신가'라는 모토로 가능이 뛰어난 퀴즈 기술과 매력적인 가격의 기계식 시계를 선보인다. 스위스 메이드 위치의 자부심을 높이기 위해 적합한 가격 대와 다양한 컬렉션은 언제나 시계를 구매하고 싶은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이번 2015년 바젤월드에서 티쏘는 브랜드의 오랜 역사와 기술력을 반영한 다양한 신제품을 대거 선보였다. 우선 럭셔리 라인에서는 티쏘 베니티지와 티쏘 슈망 데 뚜렐, 그리고 티쏘 브리지포트 메카니컬 스켈레톤을 소개했다. 먼저 티쏘 베니티지는 클래식한 18K 골드 케이스와 가죽 스트랩이 돋보이는 시계로, 남성용과 여성용, 오토매틱과 퀴즈 등 다양한 버전으로 출시해 개인의 개성과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특히 다양한 버전 가운데에서도 여성용은 정교하게 골드 세공한 자개 디아얼을 적용해 우아한 매력을 드러냈다면, 남성용은 무연탄 컬러의 그려네 이션이 돋보이는 디아얼이 특징이다. 이 오토매틱 시계는 80시간의 파워 리저브를 자랑하는 파워매틱 80 무브먼트를 장착하고 투명한 케이스 백을 적용하는 등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흡족을 데 없이 완벽하다. 이에 더해 동시대적인 감성 까지 지니고 있어 티쏘의 과거와 현재를 융합한 컬렉션이라 할 수 있다. 티쏘 슈망 데 뚜렐은 1907년 티쏘의 공장이 있던 스위스 르 로를 거리 이름에서 따와 명명한 모델명으로 티쏘의 역사성을 대표하는 특별한 제품이다. 이 시계는 폴리싱과 브러시 마감을 포함해 다양한 마감 방식으로 완성한 케이스와 현대적인 디자인을 통해 1백62년간 티쏘가 이룩한 제조 기술을 증명한다. 티쏘 슈망 데 뚜렐 위치에는 12시와 9시, 6시 방향에 각각 크로노그래프가 장착되어 있고, 3시 방향에는 날짜 창이 자리한다. 이는 골드 로마수자 인덱스에 장식한 환상적인 원형 클루드 파리 패턴처럼 아름다운 디테일로 시선을 사로잡는다. 회중시계 크로노미터 제조사로 유명했던 티쏘의 회중시계는 특별한 의미를 지닌다. 특히 오랜 전통과 유산에 대해 강한 자부심을 지닌 티쏘는 또

하나의 획기적인 회 중시계를 내놓으며 바람회에 참가한 이들의 이목을 단번에 집중시켰다. 티쏘 브리지포트 메카니컬 스켈레톤은 회중시계로는 드물게 스켈레톤을 접목 한 것이 특징이다. 골드 케이스에는 로마수자 인덱스를 더했으며 오픈워크 디아얼을 통해 구조적인 스켈레톤을 시간과 함께 확인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투명한 케이스 백을 적용해 정교한 무브먼트의 움직임까지 확인할 수 있다.

## 티쏘의 DNA, 스포츠맨십

스포츠를 사랑하는 티쏘의 DNA라고 볼 수 있는 다이내믹한 분위기를 물씬 풍기는 스포티 라인은 스포츠에 대한 티쏘의 열정과 자부심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라인이다. 티쏘는 과거부터 세계적으로 명망 높은 레이싱 경기와 아시안 게임 등의 공식 타임키퍼로 꾸준히 활동하며 새로운 기술과 스포츠맨십을 결합한 시계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바젤월드에서는 또 하나의 기념비적인 시계를 내놓았는데, '뉴 티쏘 티-터치 앤스파트 솔라'가 바로 그것이다. 최초로 시계에 터치스크린을 접목한 티-터치 컬렉션 솔라 퀴즈 무브먼트를 장착해 별도의 배터리 없이 태양열로 시계의 동력을 지원하는 티-터치 앤스파트 솔라의 업그레이드 버전이다. 기술적인 면에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티쏘의 신제품은 여러 가지 디테일로 가독성을 높인 것이 특징이다. 블랙과 블루 투톤으로 제작한 디아얼, 나침반을 형상화한 견고한 베젤, 그리고 6시 방향에 자리한 전자 창은 스포츠에 대한 티쏘의 열정과 기술력의 집약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히 모험가에게 완벽한 기능을 지원해줄 이 시계는 두 손이 자유로울 수 있도록 가죽 벨크로 브레이슬릿으로 제작해 배낭과 연결할 수 있도록 고안한 것도 눈여겨볼 만하다. 무엇보다도 일상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20가지 필수 터치 기능이 돋보이는 이 제품은 날짜와 주를 알려주는 영구 캘린더, 2개의 알람, 투 타입 존, 상대 압력을 적용한 기상 예보, 고도 편차를 적용한 고도계, 크로노그래프, 나침반, 타이머, 방위각, 레가타 기능과 백라이트 등이 시계에 접목된 기능 만 열거해도 숨 가쁘다.

스포츠를 사랑하는 티쏘의 모터 스포츠는 잡들어 있던 뜨거운 열정을 끌끌 풀어 하는 요소다. 'PRS 516' 위치는 티쏘의 놀라운 역사뿐만 아니라 모터 스포츠 마니아들에게 완벽한 시계가 될 것이라 자부한다. 시크한 무드의 블랙 디아얼에 자리한, 자동차 계기판을 형상화한 크로노그래프, 레이싱 카 엔진의 퍼스톤을 닮은 2개의 푸서와 크라운, 스티어링 휠 형상에서 착안한 스트랩은 레이싱 카에 대한 티쏘의 경의를 상징한다. 이 컬렉션에는 최초로 60시간의 파워 리저브라는 새로운 고성능 무브먼트를 적용한 것 또한 주목할 만하다. 뿐만 아니라 소재 활용도 눈에 띈다. 터키미터는 충격에 강한 신소재 세라믹이나 카본 베젤을 적용했으며, 반구형 반사 방지 사파이어 글라스를 사용해 세련되면서도 깊이감 있는 멋을 드러낸다. 6시 방향에 위치한 날짜 표시 창과 가운데 옆의 불름은 마치 아름다운 레이싱 카를 그대로 옮겨놓은 듯해 소장 가치가 높다. 문의 02-3149-8237



1 다이내믹 에너지가 느껴지는 티쏘의 부스,  
2 티-터치로 전장을 공급하는 최초의 기념비적인  
터치스크린 시계, 3 티쏘 티-터치 앤스파트  
솔라, 4 브리지포트 메카니컬 스켈레톤에서  
영감을 받아 디아얼의 에너지와 스포티한  
감각이 느껴지는 뉴 티쏘 PRS 516, 5 우한  
케이스와 현대적인 디자인, 티쏘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모두 접목한 티쏘 슈망 데 뚜렐, 6 티쏘의  
오랜 전통과 깊은 연인이 있는 회중시계를 한데로  
제작한 티쏘 브리지포트 메카니컬 스켈레톤.



# Quality Time

2015년 바젤월드에서 프레드릭 콘스탄트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시도로 눈길을 끌었다. 전통적인 워치메이커 기술력과 월드타이머, 문페이즈, 스마트 워치, 그리고 중국 전통 기념법을 접목한 다양한 워치를 선보인 것.



## 문페이즈에서 월드타이머까지

프레드릭 콘스탄트는 탁월한 기술력과 합리적인 가격대의 워치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워치메이킹 브랜드다. 특히 자사 무브먼트를 개발·제작하는 진정한 스위스 워치메이킹 브랜드로, 클래식한 디자인과 더불어 실용적인 가능성을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2015년 바젤월드에서 프레드릭 콘스탄트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시도를 꾀했다. 융두 하나로 세 가지 포지션을 조정할 수 있는 월드타이머 워치부터 잃은 무브먼트와 문페이즈를 결합한 여성 컬렉션, 그리고 철한 기술을 접목한 워치메이킹 디자인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열었다. FC-703 매뉴팩처 셀프 와인딩 칼리버를 탑재해 42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부여했고, 정교한 무브먼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스루케이스 백을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바젤월드에서는 프레드릭 콘스탄트는 전통적인 스위스 워치에 이날로그적 감성과 최첨단 디자인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워치로 시장을 들썩이게 했다. 최초로 선보인 '스위스 오풀로지컬 스마트 워치'는 실리콘 밸러리에 다양한 워치메이킹 디자인을 적용한 여성 컬렉션, 그리고 철한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워치, 미자막으로 조디악을 접목한 워치까지, 다양한 모티브와 기술력을 결합해 보는 이를 경계했다. 먼저 클래식 매뉴팩처 월드타이머 컬렉션 워치는 42시간의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FC-718 매뉴팩처 셀프 와인딩 칼리버로, 세내비 클랑-레-주아트(Plan-les-Ouates)에 위치한 매뉴팩처에서 인하우스로 개발되었다. 무엇보다 이 워치의 특징은 융두 단 하나로 세 가지 포지션을 조정할 수 있어 시계 외관, 시간, 날짜 세부뿐만 아니라 월드타이머와 같은 복잡한 기능을 손쉽게 구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3시 방향의 크리온을 통해 원하는 도시를 선택한 후 12시 방향에 위치시킨 내부 디스크가 자동으로 설정되어 편리하게 디아일에 표시된 24개 도시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6시 방향에 위치한 카운터를 통해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바젤월드에서 프레드릭 콘스탄트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시도를 꾀했다. 융두 하나로 세 가지 포지션을 조정할 수 있는 월드타이머 워치부터 잃은 무브먼트와 문페이즈를 결합한 여성 컬렉션, 그리고 철한 기술을 접목한 워치메이킹 디자인을 소개하는 전시회를 열었다. FC-703 매뉴팩처 셀프 와인딩 칼리버를 탑재해 42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을 부여했고, 정교한 무브먼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스루케이스 백을 장착한 것이 특징이다.

이번 바젤월드에서는 프레드릭 콘스탄트는 전통적인 스위스 워치에 이날로그적 감성과 최첨단 디자인 기술을 결합한 스마트 워치로 시장을 들썩이게 했다. 최초로 선보인 '스위스 오풀로지컬 스마트 워치'는 실리콘 밸러리에 다양한 워치메이킹 디자인을 적용한 여성 컬렉션, 그리고 철한 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워치, 미자막으로 조디악을 접목한 워치까지, 다양한 모티브와 기술력을 결합해 보는 이를 경계했다. 먼저 클래식 매뉴팩처 월드타이머 컬렉션 워치는 42시간의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FC-718 매뉴팩처 셀프 와인딩 칼리버로, 세내비 클랑-레-주아트(Plan-les-Ouates)에 위치한 매뉴팩처에서 인하우스로 개발되었다. 무엇보다 이 워치의 특징은 융두 단 하나로 세 가지 포지션을 조정할 수 있어 시계 외관, 시간, 날짜 세부뿐만 아니라 월드타이머와 같은 복잡한 기능을 손쉽게 구동할 수 있다는 것이다. 3시 방향의 크리온을 통해 원하는 도시를 선택한 후 12시 방향에 위치시킨 내부 디스크가 자동으로 설정되어 편리하게 디아일에 표시된 24개 도시의 시간을 확인할 수 있다. 또 6시 방향에 위치한 카운터를 통해 날짜를 확인할 수 있다.

# New Revolution

자리드 페리고는 브랜드의 시그너처를 다시금 내세웠다. 1867년에 개발한 '쓰리 골드 브릿지 투르비옹'과 또 다른 브랜드의 역사적인 산물인 미닛 리피터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 쓰리 브릿지의 귀환

자리드 페리고는 18세기 말부터 전통을 이어온 명품 워치메이킹 브랜드로, 기계식 시계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기록적인 역사를 지니고 있다. 이번

2015년 바젤월드에서는 자리드 페리고 브랜드 관

장이 직접 프레센테이션을 진행했을 정도로 브

랜드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하다. 올해 역시 브

랜드 고유의 기술력을 접목한 컬렉션을 선보였

는데, 먼저 전 세계 단 1000만 한정 생산하는 미닛

리피터 투르비옹 골드 브릿지 워치는 미닛 리피터

와 함께 60시간이라는 뛰어난 파워 리저브 기능과 더불어 1분

에 정교히 1회전하는 6시 방향의 투르비옹은 80개의 부품을 갖추고도 무게

가 단 25g에 지나지 않는다. 올해 출시 70주년을 맞이하는 컬렉션도 있다.

비로 남자지 1945 70주년 에디션 워치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자리드 페

리고는 탄생 70주년이라는 역사적인 해를 기념하기 위해 남자지 1945 스몰

세컨즈와 남자지 1945 쓰리 골드 브릿지 투르비옹, 남자지 1945 쓰리 골드 브릿지 투르비옹 주얼리를 선보인다. 먼저 남자지 1945 스몰 세컨즈 위



1 충전한 분위기를 풍기는 프레드릭 콘스탄트의 부스. 2 디아일 디자인으로 가능인 메리트를 고스란히 드리는 클래식 매뉴팩처 월드타이머 컬렉션. 3 올해 큰 이슈로 탄생시킨 스위스 오풀로지컬 스마트 워치. 4 라이디 슬림라인 문페이즈 매뉴팩처.

# High & Mighty

스페인어로 '나는 특장한다'라는 뜻을 지닌 미도(Mido), 끼니로운 COSC 인증을 받은 크로노미터 제품을 그 어느 브랜드보다 접근하기 쉬운 가격대로 선보인다는 점에서 기장 매력적이다. 2015년 바젤월드에서 스티디셀러 컬렉션을 자아내는 모델을 대거 선보여 눈길을 끈 미도의 2015 바젤 컬렉션을 소개한다.

## 코리아 리미티드 에디션부터 우아한 여성 위치까지

2015 바젤월드의 미도 부스에서 가장 눈길을 끈 것은 멀티포트 GMT 코리아 리미티드 에디션. 미도 코리아의 한국 론칭 5주년을 기념해 제작한 모델로, 12시 방향에 위치한 'Seoul' 로고와 6시 방향에 표시한 Limited Edition '네이밍 디테일'이 인상적이다. 뮤얼 타임 기능까지 더한 것은 물론 단 1번 기반 혁신으로 출발하며, 블랙과 오렌지 컬러의 레더 스트랩과 함께 럭셔리하고 특별한 케이스에 담아 선보인다. 이와 함께 올해 주력 아이템으로 출시한 멀티포트 칼리버 80 크로노미터는 1940년에 탄생한 모델로, 기존의 클래식한 멜็ด를 그대로 유지해 과거와 현재의 미도를 한눈에 볼 수 있다. COSC 인증을 획득한 무브먼트를 사용해 정확도를 인정받았고, 80시간의 파워 리저브 또한 가능하다. 또 하나의 신제품 '올 디아일 스페셜 에디션'은 스트랩 부분의 키링 애지 디테일이 돋보이는 라인으로, 정교하고 섬세한 세팅이 두드러진다. 올해 선보인 이 시계는 절제된 디자인과 섬세한 디테일에 남성적인 스포티함을 더해 새롭게 재해석되었다. 특히 무광 블랙 디아일과 인테스의 오렌지 컬러가 대비되어 동사대적인 감각을 기미한 것이 특징이다. 미도는 여성용 컬렉션까지 대거 선보였는데 비론콜리 도나 칼리버와 비론콜리 라이더 미니가 바로 그 주인공. 섬세하고 정교한 보석 세팅과 자개 디아일을 결합해 극강의 우아함을 자아낸다. 보다 작은 사이즈의 주얼 위치 비론콜리 라이더 미니는 25mm의 디아일 케이스와 양면 무브리 코팅 차리한 사파이어 글라스, 정교한 기묘제 패턴, 자개 디테일의 디아일 등으로 시계에 클래식한 멜드를 부여했다. 이처럼 타임리스 컬렉션을 자랑하는 미도는 2015년 바젤월드에서 전장한 디자인의 상장이라는 브랜드의 아이덴티티를 여과 없이 보여주었다.



05 미도에는 건축미가 물씬 나는 워치 컬렉션이 특하나 많다. 또 최근엔 세계 건축 기관회(UIA)와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체결해 큰 이슈가 되었다. 특별히 세계 유명 건축물과 기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이유가 있다? 미도는 슬로건인 'A Mark of True Design' 전장한 디자인의 상장과 같이 시장이 자주도 아름다움과 기초가 변하지 않는 건축물과 그 의미가 일맥相通하는 부분입니다. 그 때문에 세계적인 건축물에서 영감을 얻어 디자인한 시계를 선보이는 것이며, 더 나아가 UIA와 파트너십을 맺어 건축과 미도의 관계를 더욱 긴밀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06 미도는 아주 매력적인 여성 워치 라인업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여성들에게 그게 대중적인 브랜드는 아닌 것 같다. 앞으로 여성용 워치 시장을 키울 계획이 있는가? 미도는 패션 워치 브랜드가 아닌 전통적인 시계 브랜드로서 기계식 무브먼트 시계를 중점적으로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소비자는 미도가 남성적인 브랜드라고 생각하고, 특히 여성 소비자에게 여성 브랜드로 인식된 것 같아요. 그런데 흥미 남성은 여성에게 시계를 선물하지 않지만, 여성은 남성에게 선물을 시계를 선물하지 않나요? 사실 이런 이유로 여성에게 미도를 더 많이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생각해요.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이 여성 소비자들의 소비 행태가 성장하면서 오토매틱 워치에 대한 관심과 구매력이 높아진 것이 사실입니다. 미도에서는 이에 발맞추어 여성 소비자 선호하는 우아한 디자인을 물씬 나는 여성용 워치 라인을 강화했고, 특히 퀄리티는 커질 워치 리인을 많이 선보였습니다.

07 스와치 그룹 내에서 미도가 보유한 경쟁력과 남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사실 스와치 그룹의 모든 시계 브랜드는 최고 퀄리티의 무브먼트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브먼트를 어떠한 디자인으로 표현해내는가 하는 것도 브랜드의 퀄리티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죠. 미도의 특별한 디자일과 백 케이스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시계에선 볼 수 있는 재내비 스트라이프와 블루 스트라이프를 접목한 무브먼트, 기묘제 패턴의 디아일이 미도가 하이 퀄리티 시계임을 자부하는 요소입니다.

08 미도의 다양한 워치 컬렉션 중 당장이 기장 애정을 갖는 시계는 무엇이고, 매일 착용하는 시계는 무엇인가?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시계는 카먼더 컬렉션의 블루 디아일 크로노그라프 워치입니다. 기장 처음 착용한 미도의 시계가 카먼더 컬렉션에 있었죠. 카먼다는 매우 스타일리시하며 편안한 착용감이 돋보이는 시계예요. 칼리버 60 무브먼트를 탑재해 60시간까지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것 또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에디션 커뮤진(바젤 현지 취재)

## 두 자리 수의 기록적인 성장을 이루다

미도 그룹을 이끌고 있는 CEO 프란츠 린더에게 2015년은 굉장히 의미 있는 한 해다. 한국 론칭 5주년을 맞이한 것과 더불어, 두 자리 수의 기록적인 성장을 이룬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시장점유율이 대폭 증가하기 때문이다. 특히 지난 5년간 한국 시장에서 빠르고 꼭밀적인 성장을 보인 미도는 이를 기념해 디자인은 6월, 코리아 GMT 리미티드 에디션을 출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한 설명을 듣기 위해 바젤에서 프란츠 린더와 만나 이야기를 나눴다.

01 미도가 올해 한국 론칭 5주년을 맞았다. 5주년은 짧은 시간 동안 미도는 국내에서 빠른 성장을 이루었는데, 미도가 한국 시장에서 성공할 것이라고 예측했는가? 사실 우리는 미도 코리아를 론칭하기 전부터 한국 시장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했고, 빠르게 성장하는 한국 내 시계 시장의 동향을 보면서 큰 성공을 이루리라고 확신했습니다. 놀랄게요. 론칭한 후 지금까지 5년 동안 우리가 기대했던 것 이상으로 성과를 냈고, 매년 30% 이상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는 미도의 뛰어난 상품력이 뒷받침되었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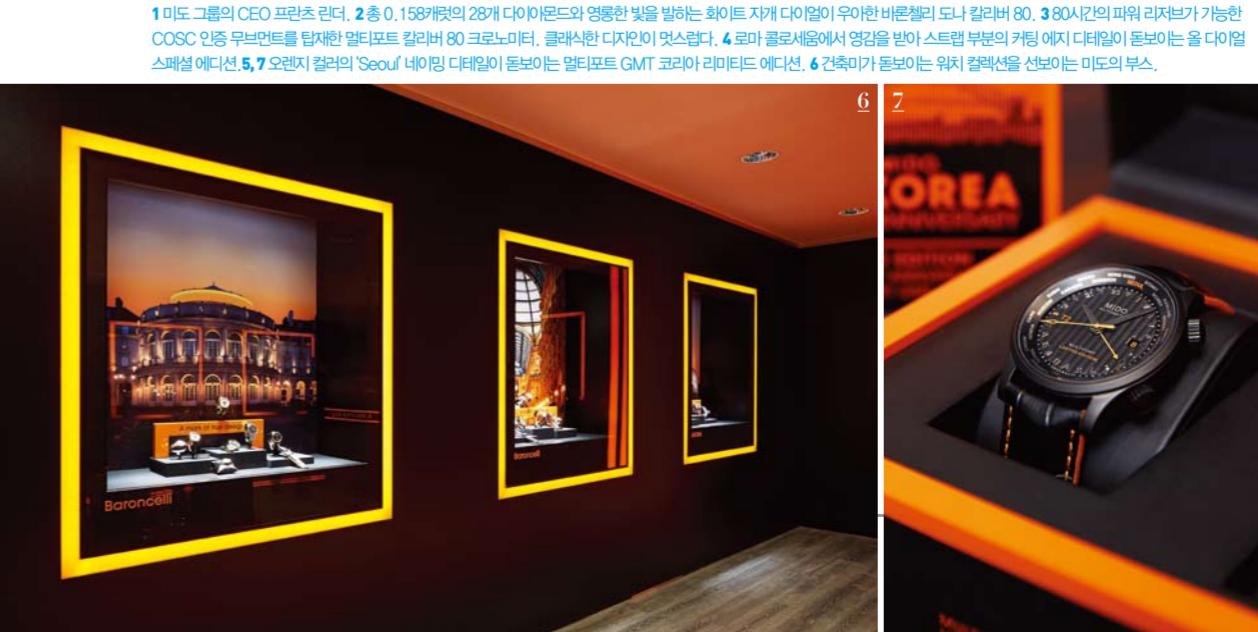
02 미도에 있어 한국 시장은 어떤 의미인가? 그리고 한국 워치 마니아들의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는가? 한국 시계 시장의 눈부신 성장은 바로 한국 소비자의 구매력 성숙도를 보여주는 지표이기 때문에 한국은 미도에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는 5년 동안 미도 코리아가 거친 수출을 넘어서 시장 진입을 해내는 데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03 미도에 선보인 바젤 신제품 중 가장 눈길이 가는 컬렉션은 무엇인가? 올해는 여성용 워치가 특히 많이 출시되었습니다. 간결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의 특징인 25mm 디아일의 비론콜리 미니가 대표작입니다. 작은 시계에는 오토매틱 무브먼트를 적용하기가 매우 어려운데, 이는 미도만의 독보적인 기술력이 있었기에 실현 가능했다고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04 '미도'에 대해 이야기할 때 핵심적인 기준에 빼놓을 수 없다. 뛰어난 기술력과 오랜 전통을 지난 미도가 보다 핵심적인 기준으로 대중에게 접근하는 이유가 있는가? 더 많은 소비자들에게 퀄리티 높은 시계를 제공하는 것이 미도의 목표이기 때문입니다. 미도는 잘 알려진 바와 같이 스와치 그룹에 속해 있어 최고 퀄리티의 무브먼트를 쉽게 공급받을 수 있죠. 이것이 바로 고품질 시계를 핵심적인 기준으로 소비자에게 제시할 수 있는 비결입니다.

05 미도 그룹 내에서 미도가 보유한 경쟁력과 남다른 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사실 스와치 그룹의 모든 시계 브랜드는 최고 퀄리티의 무브먼트를 공급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무브먼트를 어떠한 디자인으로 표현해내는가 하는 것도 브랜드의 퀄리티를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죠. 미도의 특별한 디자일과 백 케이스를 통해 엿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급 시계에선 볼 수 있는 재내비 스트라이프와 블루 스트라이프를 접목한 무브먼트, 기묘제 패턴의 디아일이 미도가 하이 퀄리티 시계임을 자부하는 요소입니다.

06 미도의 다양한 워치 컬렉션 중 당장이 기장 애정을 갖는 시계는 무엇이고, 매일 착용하는 시계는 무엇인가? 지금 제가 착용하고 있는 시계는 카먼더 컬렉션의 블루 디아일 크로노그라프 워치입니다. 기장 처음 착용한 미도의 시계가 카먼더 컬렉션에 있었죠. 카먼다는 매우 스타일리시하며 편안한 착용감이 돋보이는 시계예요. 칼리버 60 무브먼트를 탑재해 60시간까지 파워 리저브가 가능한 것 또한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에디션 커뮤진(바젤 현지 취재)





# keep the Time

보기만 해도 흐뭇한 시계 컬렉션의 소장 가치를 높이고, 컬렉터의 자부심까지 채워주는 위치 액세서리 컬렉션,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왼쪽 위 빨간 박스부터 시계 방향으로) 악어족 백 브랜드 떠오르는 브랜드 플랫폼의 위치 박스, 천연 암석과 학성암 악어족으로 제작한 간고한 풍미에 고급스럽다. 강렬한 레드 컬러로 화장대 위 토끼와 풀을 보는 활용에도 손색없다. 예전에 네이버 블로그에 운 브라운 컬러로 부피도 크지 않아 출장이 찾은 비즈스케이프 추천한다. 300원대 오피가, 문의 02-511-5797 위치 박스. 인 시계는 해밀턴 오토매틱 시계를 소개하고 있는 이들에게 유용한 위치 와인더. 시계를 잘 때마다 시계를 맞춰야 하는 부가로움을 덜어준다.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블랙 큐브 디자인과 외관과 고고한 조각한 패턴이 인상적이다. 1백원대 위치 와인더와 인에 사용한 시계 모두 오피가. 시계를 오랫동안 사용하는 편은 디자인 최급 악어 가죽 케이스에 보방자, 악어족 특유의 디테일이 살아 있는 시계 케이스로, 남성 미가 느끼는 걸기 미력하다. 1백41만원 셀트리고 골드박스 by 본다샵, 문의 02-3444-3300 루이 비통의 대표적인 모노그램 패턴을 담은 시계 케이스. 간편하게 둘둘 말아 이행 가방에 쑥 넣어도 좋다. 1백만원대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64 케이스 안에 시계는 블랙, 오른쪽 시계는 블루로, 고급스럽고 묵직한 우드 박스 안에 레드, 오렌지, 블랙, 브라운 등 4가지 어くん 스트라이프 패턴이 있는 위치 박스. 기본에 디자인 다양한 스트라이프를 연출할 수 있어 신선힐다. 올트리 슬림 위치 포함 250만원대 블랙, 문의 02-2230-3868 에디터 권유진, 김현

HAMILTON

# Progressive Spirit

해밀턴은 2015년 바젤월드를 통해 새로운 동력원을 공개했다. 스위스 메이드의 자사 무브먼트 H-32와 H-10-S, 그리고 H-41° 무브먼트가 바로 그 주인공이다. 전설적인 로거 엘비스 프레슬리의 80세 생일을 맞아 선보인 벤추라 엘비스 80부터 스켈레톤을 적용한 '제스미스터 스켈레톤 레이디'까지, 해밀턴의 모든 비전을 만나보자.



## 완전히 새로운 무브먼트의 등장

2015년 바젤월드에서 해밀턴은 새롭게 개발한 3개의 자사 무브먼트와 벤추리를 오마주한 벤추라 엘비스, 그리고 새로운 무브먼트를 탑재한 월드타이머 크로노와 레일로드 스켈레톤 위치, 그리고 여성용 컬렉션까지 선보여 다양한 시도를 염볼 수 있었다. 그중 가장 눈여겨봐야 할 것은 올해 해밀턴이 새롭게 개발한 세 가지의 자사 무브먼트를 공개했다는 사실이다. 해밀턴의 우수한 기술력과 삼미성을 겸비한 두 가지의 오토매틱 칼리버 H-32와 H-10-S, 크로노그래프와 월드타이머 기능을 결합한 퀴즈 칼리버 H-41° 무브먼트가 바로 그것이다. 이들 무브먼트는 새롭게 선보인 시계에도 적용되어 해밀턴의 새로운 동력임을 입증했다. H-32 오토매틱 무브먼트는 정교하고 세련된 구조가 돋보이는 무브먼트로, 키키 네이비 피아이너스 스몰 세컨즈의 시스루 케이스 백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정교한 달팽이 패턴, 자개 소재

와 어우러진 이 무브먼트에 로터의 스켈레톤 구조가 결합되어 한층 우아하다. H-10-S는 새로운 모델 레일로드 스켈레톤 시계를 지원하는 완벽한

동력이다. 스켈레톤화된 디이얼을 통해 복잡하고 분주하게 움직이는 무브먼트를 확인할 수 있다. 배설에서 탈진기까지 전체적으로 개선된 역동적 체인으로 80시간 파워 리저브 기능을 지원한다. 특히 탈진기 케이블레이터를 억제해 신뢰성과 정밀성을 높이고 일반 표준 무브먼트 동력보다 작동 용량을 2배로 늘렸다. H-41° 퀴즈 무브먼트는 24개의 타임 존에 달하는 월드타이머 모드와 파일럿 크로노그래프 모드로 전환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월드타이머 모드로 설정된 상태일 때는 순수운 양방향 조정으로 선택된 지역의 현재 시간

을 계산할 수 있다. 일광 절약 시간제 가능 역시 신뢰성을 보장하는 소프트웨어에 포함되었다. 10시 방향의 푸서를 짧게 누르면 크로노그래프 기능이 활성화된다. 이 푸서는 분침에 집중해 파일럿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익기 쉬운 분 카운터가 특징이다. H-41° 무브먼트는 민간 파일럿과 전문 파일럿이 매일 사용하는 국제 표준시를 보여주는 기능으로 완벽하게 완성된다.

## 영화 속 드림 위치, 해밀턴 벤추라

벤추라는 해밀턴의 대표 모델이다. 출시 당시 파격적인 디자인으로 엘비스 프레슬리에게 매혹시킨 최초의 전자시계다. 그리고 2015년 벤추라는 올해 1월 80세가 되는 엘비스 프레슬리에게 경의를 표하기 위한 벤추라 엘비스 80으로 재해석되었다. 대담한 선이 돋보이는 삼각형 케이스의 벤추라 엘비스 80의 동력은 80시간 파워 리저브를 자랑하는 해밀턴 자사 무브먼트 H-10에 의해 공급된다. 새로운 성능과 소재, 그리고 기술력을 접목한 이 시계는 오토매틱 무브먼트와 퀴즈 무브먼트 중 선택 가능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소재에 주목할 만한데, 올 블랙의 오토매틱 버전은 PVD 케이스와 스포티한 라버 혹은 스티칭이 돋보이는 레더 스트랩을 선보였고,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은 세 가지 퀴즈 무브먼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올해 바젤월드에서 매력적이라고 꼽힌 또 하나의 위치는 '카 카 크로노 월드타이머'. 전 세계 주요 24개 도시의 표준 시간대를 정확하게 표시하는 기능을 갖췄다. 이 제품의 동력원은 새롭게 선보인 칼리버 H-41° 퀴즈 크로노그래프 무브먼트다. 곡에 비행 조종사인 니콜라스 이바노프(Nicolas Ivanoff)와 협력해 개발한 이 시계는 비행기 조종석에 있는 레이더 화면을 연상시킨다. 파일럿에게 정확한 시간을

확인하는 것은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10시 방향의 푸서는 크로노그래프 기능과 월드타이머 기능을 전환하는 스위치다. 푸서를 짧게 누르는 것만으로도 국제표준시(UTC)가 표시된다. 여성용 컬렉션은 레일로드와 재즈마스터 컬렉션을 재해석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네이비 블루부터 페트롤 블루까지 다양한 블루 컬러를 해석해 시계에 적용했다. 창립 했을 당시 해밀턴은 크로노미터급 화중시계를 선보이며 공인 철도 시계 제조사라는 영예를 얻기도 했다. 당시에 선보인 화중시계를 모토로 레일로드 레이디 퀴즈 위치를 단행시켰다. 영롱한 푸른빛 자개 다이얼의 레일로드 레이디 퀴즈 위치는 페트롤 블루 레더 스트랩과 스테인리스 스틸 버전의 브레이슬릿을 손쉽게 교체할 수 있어 다양한 스타일링이 가능하다. 이 시계는 다이아몬드를 풀 세팅한 베젤 혹은 12개의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다이얼의 두 가지 버전으로 선보인다. 탁월한 기술력과 섬세한 공정을 요하는 스켈레톤은 시계의 기계적인 아름다움을 확인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다. 자개 다이얼에 오픈워크 기법을 더해 칼리버 H-20-S 무브먼트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제스미스터 스켈레톤 레이디 위치는 여성용 시계로서 또 다른 미를 자랑한다. 총 68개의 영롱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베젤로 극강의 품격을 드러낸다. 문의 02-3149-9593



#### Quatre Radiant Edition

지난 2013년 파리 방돔 광장 부쉐론 메종 오픈 1백20주년을 기념해 선보인 '콰트 clue 에디션'은 방돔의 역사 깊은 자갈길에서 영감을 받은 클루드 파리 문양을 사용해 불을감이 느껴지도록 완성했다. 가장 그뤠잇하고 대담한 라인으로 손꼽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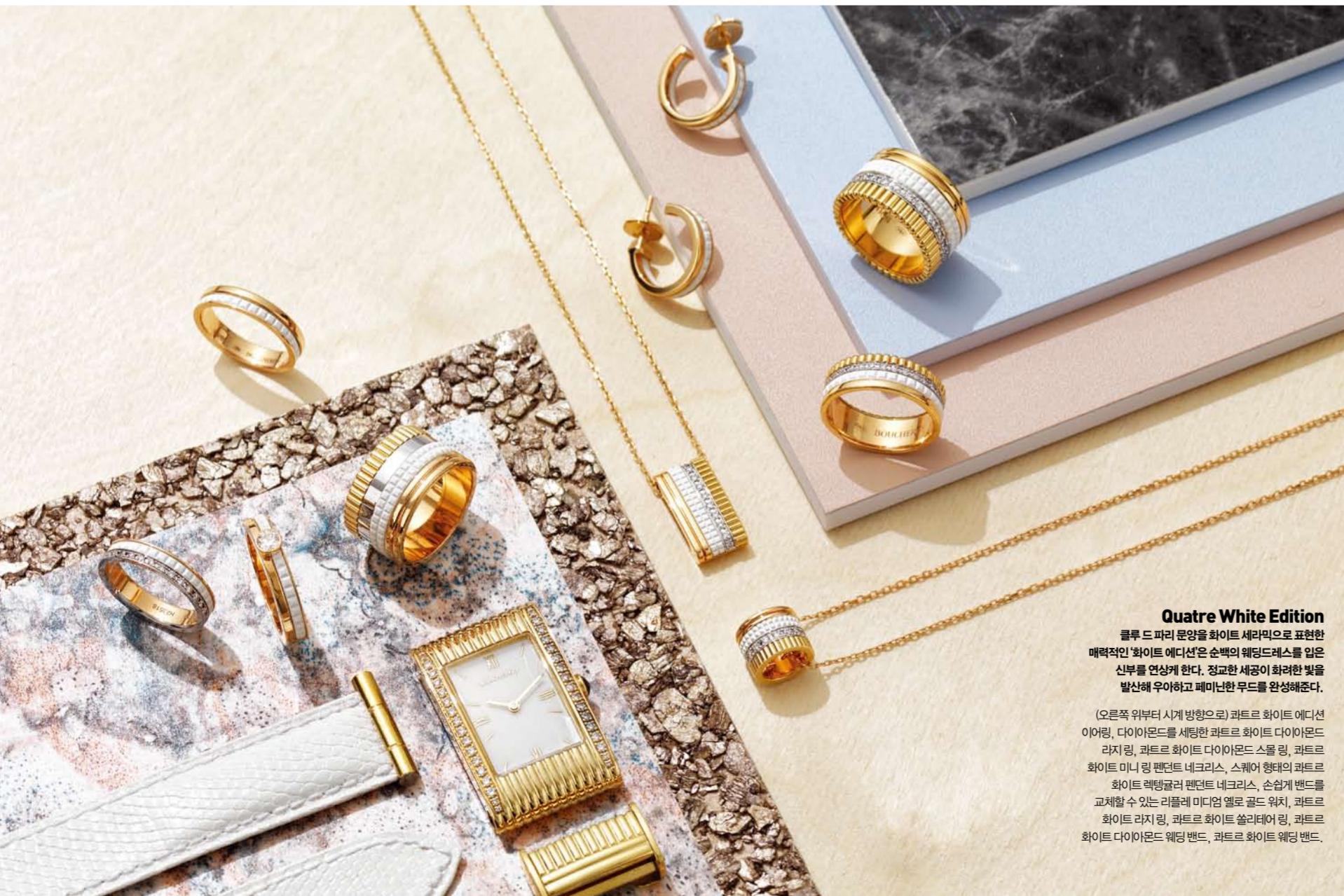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콰트 clue 뷔미에르 화이트 골드 뱅글, 콰트 clue 레디언트 화이트 골드 뱅글, 다이아몬드와 엘로 골드를 세팅한 콰트 clue 뷔미에르 엘로 골드 뱅글, 콰트 clue 뷔미에르 화이트 골드 솔리테이어 링, 콰트 clue 레디언트 에디션 화이트 골드 링, 콰트 clue 뷔미에르 화이트 골드 솔리테이어 링, 콰트 clue 뷔미에르 화이트 골드 링, 콰트 clue 뷔미에르 화이트 골드 웨딩 밴드, 콰트 clue 뷔미에르 엘로 골드 웨딩 밴드.



# modern & Bold

아시스트 트루 박제미

프랑스어로 '4'를 뜻하는 의미 그대로, 오직 네 가지 소재의 골드와 모티브로 표현한 부쉐론의 '콰트 clue' 컬렉션. 레이어링한 듯 세련된 링에는 파리 방돔 광장에서 시작된 부쉐론의 1백50년 역사가 고스란히 담겨 있다.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정교한 세공 기법과 독특한 문양의 조합만으로 소장 가치가 높다. 클래식함과 모던함, 심플함과 화려함을 모두 갖추어 드라마틱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부쉐론의 시그너처를 소개한다. *photographed by park gun zoo*



#### Quatre White Edition

클루드 파리 문양을 화이트 세라믹으로 표현한 매력적인 화이트 에디션은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신부를 연상케 한다. 정교한 세공이 화려한 빛을 발산해 우아하고 페미닌한 무드를 완성해준다.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콰트 clue 화이트 에디션 이어링, 다이아몬드를 세팅한 콰트 clue 화이트 다이아몬드 리지링, 콰트 clue 화이트 다이아몬드 솔링, 콰트 clue 화이트 미니 김 뱀단트 네크리스, 스웨어 형태의 콰트 clue 화이트 레깅글러 펜던트 네크리스, 손쉽게 레드를 교체할 수 있는 리플레 미니엄 엘로 웨이저, 콰트 clue 화이트 리지링, 콰트 clue 솔리테이어 링, 콰트 clue 화이트 다이아몬드 웨딩 밴드, 콰트 clue 화이트 웨딩 밴드.



#### Quatre Black Edition

화이트와 블랙의 조화가 물씬 있는 블랙도 입은 남자들은 블랙 에디션. 세련된 남성미라면 한눈에 반할 깔끔하고 시크한 무드로 깊이감이 느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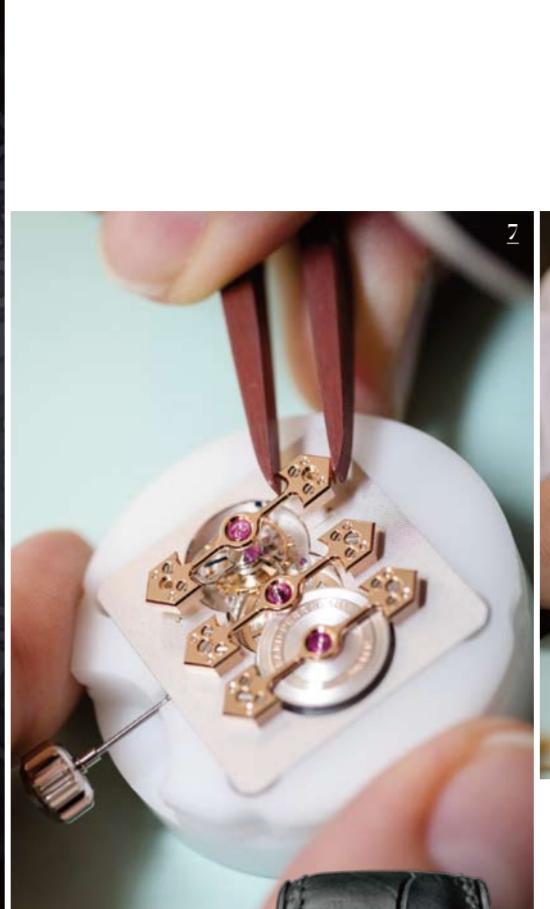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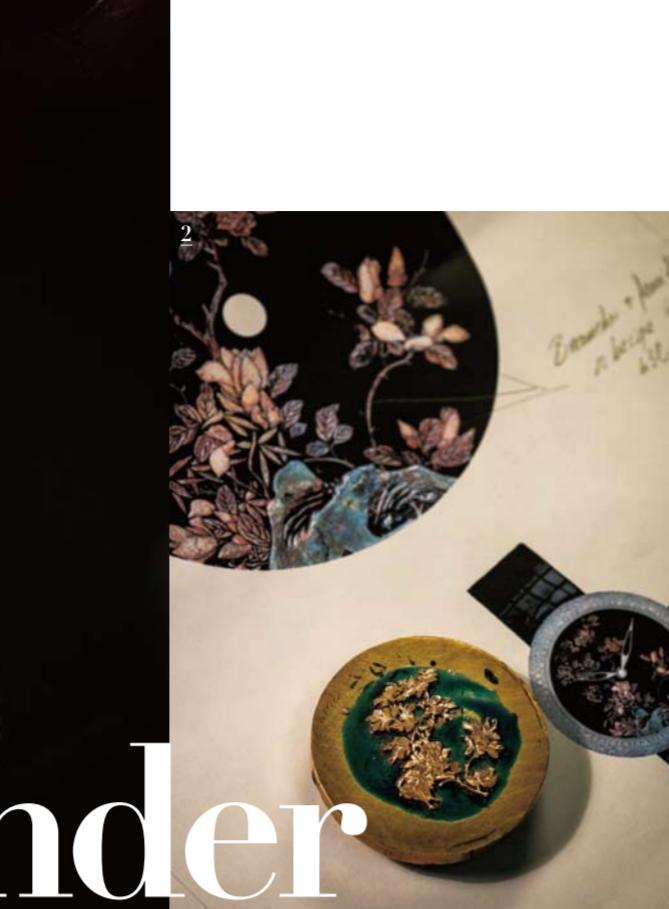
(오른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콰트 clue 블랙 스ول링, 콰트 clue 리지링, 애파이어 38mm 화이트 다이얼 웨이저, 콰트 clue 블랙 웨이저 밴드, 콰트 clue 블랙 다이아몬드 스ول링, 골드를 끼어서 만든 쌔링 화이트 골드 웨딩 밴드, 세렝 화이트 골드 솔리테이어 링, 콰트 clue 클래식 솔리테이어 링, 콰트 clue 블랙 다이아몬드 웨딩 밴드. 문의 02-3213-2246

에디션 배마진, 권유진

#### Quatre Classic Edition

남녀 모두에게 꾸준히 사랑받아온 클래식 라인은 SNS 스타들이钟용한 사진으로도 그 인기를 살감게 한다. 기하학적인 패턴과 어우러진 달콤한 초콜릿 블라운 컬러의 골드가 특별함을 더한다.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세렝 핑크 골드 솔리테이어 링, 콰트 clue 웨딩 밴드, 콰트 clue 클래식 다이아몬드 리지링, 콰트 clue 클래식 솔리테이어 링, 콰트 clue 스몰링, 콰트 clue 클래식 체인 브레이슬릿, 콰트 clue 클래식 다이아몬드 스몰링, 콰트 clue 클래식 다이아몬드 웨딩 밴드.



# artistic Wonder

바젤월드는 세상의 모든 시계를 모아놓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대규모의 위치 박람회다. 하지만 이곳에서 우리가 첫눈에 반하게 되는 시계는 복잡한 시계도, 완벽한 시계도 아닌 장인이 빚어낸 눈부시게 아름다운 시계다. 이처럼 궁극의 아름다움과 시계로서의 가치를 모두 겸비한 '메티에 다르(Metiers d'Art) 컬렉션'을 만나보자.



## 시계 예술의 끝을 보다

손톱만한 시계 디아일을 캔버스 삼아 그 위에 사람 머리카락 한 올 두께의 얇디얇은 봇으로 아름다운 풍경을 그려 넣거나, 손으로 잡기도 어려운 얇은 금속을 망치로 두드리고 조각칼로 깎아 불상이나 풍속도를 구현하기도 하는 메티에 다르(Metiers d'Art) 컬렉션. 기술을 뛰어넘는 예술이라는 의미를 지닌 메티에 다르는 단어의 뜻 그대로 차가운 기계에 시계 예술이라는 마법의 터치를 더해 아름다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일이다. 가격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 국보급 장인들의 예술혼과 숭고한 정신을 그대로 담은 이 아티스틱 워치는 이번 바젤 페어에서 소개된 그 어떠한 시계보다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기에 충분했다. 매년 많은 위치 브랜드들이 시계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보다 진보된 무브먼트로 시계 역사를 새롭게 쓰고 있는데, 기술력을 더욱 아름답게 표현하는 메티에 다르 역시 시계 브랜드의 자부심과 시계 예술을 보존하기 위한 브랜드의 노력을 엿볼 수 있는 컬렉션이다. 실제 몇몇 브랜드에서는 박람회장 부스에 장인을 초청해 직접 아트 과정을 시연하기도 했다. 35mm가 채 되지 않는 작은 디아일 위에 플라잉 투르비옹을 배치했다는 점은 1백50년의 역사를 지닌 주얼리·워치 공방을 보유한 브랜드이기에 구현 가능한 기술적 기량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모든 노하우가 결집된 아트피스다. 이와 함께 새로운 메티에 다르 기술을 엿볼 수 있는 마드모아엘 프리베 꼬르망델도 주목할 만하다. 아주 가볍고 얇은 금속을 나뭇가지 형태로 커팅해 세이핑과 인그레이빙 작업을 통해 나무껍질의 느낌을 리얼하게 살려냈는데, 실제로 보면 그 사실적인 디테일에 놀라게 된다. '역시 샤텔이라는 생각이 들 만큼 우아하고 아름다운 화법은 바젤에서도 여지없이 빛났다.'

## 자연을 품은 러프 다이아몬드, 부쉐론

부쉐론의 부스에 들어가기에 앞서 드는 기대감은 '이번에는 어떤 아름다운 하이 주얼리 워치를 선보일까'라는 것이다. 부쉐론은 올해에도 역시 그 기대에 부응할 만큼 놀라운 티임피스를 선보였다. 부쉐론의 공방이 위치한 방돔 광장의 상징적인 자갈길을 디아일에 재현하고, 그 위에 세 줄기의 아이비를 꽂았던 것. 라이드 루미에르의 디아일을 들여다보면 과연 이 자갈길은 무엇으로 만든 것일까 궁금증을 유발시키는데, 이는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가공하지 않은 다이아몬드를 모자이크하듯 자갈 모양으로 세팅한 것이다. 더불어 이 아름다운 디아일 위에 플라잉 투르비옹을 배치했다는 점은 1백50년의 역사를 지닌 주얼리·워치 공방을 보유한 브랜드이기에 구현 가능한 기술적 기량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 현대적인 매력을 담은 예술품, 루이 비통

루이 비통이 처음 시계를 선보였을 때 과연 어떤 진보를 이룰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품었지만 에스컬 티임 존은 모든 시계 전문가들이 인정할 만큼 컬러의 향연을 보여주는 그래픽적인 시계의 상징이 되었다. 여행을 주요 테마로 하는 루이 비통의 철학과 미학적 코드를 그대로 고수해 여행용 트렁크를 맞춤 제작할 때 사용했던 기하학적 인 모티브를 아낌없이 적용한 점이 돋보인다. 실리콘 코팅한 고무 스템프를 이용해 비어 있는 디아일에 컬러 페인트를 하나하나 정교한 수작업으로 채워 넣은 것이 특징. 로컬 타임을 보여주는 중앙의 작은 세모 창과 디아일 가장자리에 위치한 도시의 이나셜이 시계의 상징이다. 이는 여행을 테마로 하는 브랜드 철학과 일맥상통하는 현대적인 매력을 담은 예술품이라 정의할 수 있다.

## 실과 패브릭으로 우아하게 풀어낸 아트 피스, 샤텔 화인 주얼리

바젤월드에서 샤텔 화인 주얼리만큼 화려한 브랜드를 찾을 수 있을까. 특히 올해는 화려함의 극치라는 표현이 절로 나올 만큼 가장 우아한 샤텔의 아름다운 테마를 시계에 그대로 옮겼다. 샤텔에 있어 우아한 빛이 감도는 패브릭과 실은 그들을 가장 잘 표현하는 자연스러운 언어다. 이번 바젤월드에서 샤텔 화인 주얼리는 역사 깊은 패션 브랜드의 근본을 담아 이를 시계에도 유연하게 풀어내 감탄을 자아냈다. 대표적으로 오트 쿠튀르 드레스를 만들 듯 실크 디아일에 디아몬드를 자수 기법으로 세팅한 마드모아엘 프리베를 꼽을 수 있다. 이는 샤텔 하우스에서 인수한 유서 깊은 자수 공방인 프랑스 르사주 공방에서 정교한 수작업으로 완성한 것으로, 37.55mm의 작은 디아일 표면에 카멜리아와 코메트 모티브를 작은 바늘로 한땀 한땀 수놓았다. 금을 흘뿌려놓은 것이 아닐까, 하는 착각이 드는 이 완성품은 샤텔의



현장 사진 구윤미



## 금속공예로 부활한 전설적인 힌두 신, 블랑팡

이미 강렬한 디자인만으로도 시선을 압도하는 블랑팡의 '사쿠도 컬렉션'은 일반적인 시계 브랜드에서는 쉽게 시도하지 않는 금속공예를 적용해 신선히 더했다. 특히 서양에서는 볼 수 없는 무속 신앙의 기운과 종교적 색채가 묻어나는 힌두 신, 가네시를 모티브로 선택했다는 것이 단연 돋보인다. 코끼리 머리 형상을 한 가네시는 힌두교에서 장애물을 극복하고 부활을 뜻하는 신으로, 역사 속에서 사라질 뻔하다 회생한 블랑팡의 역사

와 오비랩되며 그 의미를 한층 극대화한다. 중앙에 놓인 골드 소재의 왕좌를 손으로 일일이 인그레이빙하는 방식으로 형상화했으며, 섬세하게 디테일을 살린 이 장식적인 요소들은 상감기법을 통해 정교하게 완성되었다. 절은 청록색을 띠는 디아일에는 일본이 원산지인 구리와 금을 합금한 사쿠도를 사용했는데, 구리아세틸리드 성분으로 이루어진 로쿠쇼 용액에 담그는 횟수에 따라 겉은 빛깔이 점차 더 깊고 강해지는 것이 특징이다. 이처럼 일본에서 전해져오는 고대 방식을 적용하며 금속공예 기술에 대한 매뉴팩처의 전문성을 보여준 블랑팡의 디아일은 장인의 수작업으로 완성하는 만큼 각기 다른 컬러, 인그레이빙 스타일을 담은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유니크한 아트 피스라는 점에서 더욱 특별하다. 에디터 권유진(비젤 현지 취재)



12



10



1, 2, 4 사설 화인 주얼리 마드모아엘 프리베 꼬르망델의 작업 과정과 완성된 시계의 모습. 기기야에서 들어다보면 나무나도 생새하고 청교한 나무기자와 디아일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한다. 3 실크 디아일 위에 자수 장인이 작은 바늘로 한땀 한땀 새겨 넣은 디아이몬드와 진주 장자이 한 벌의 그로 쿠튀르 드레스를 강조하는 듯하다. 5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러프 다이아몬드로 방돔 광장의 자갈길을 디아일에 표현한 부쉐론 리에르 드 루이 비통. 6 고티 트렁크 디자인에 사용한 디아일은 걸은 고마쿠라베 모티브를 이길없이 적용해 한동부인 예술품을 완성한 푸아 비통 에스컬 타임 존. 7, 8, 9 러브 드 루이 비통 1945 쓰리 골드 브리지 투르비옹 워치. 모두 장인의 수작업으로 완성하는 이 시계는 무브먼트 자체를 예술로 승화한 아트피스. 10, 12, 13 지난 몇년의 대기자 일본의 무형문화재로 손꼽히는 장인 후쿠시마가 직접 바젤월드에서 시현한 작업 과정. 그가 아래에 선보인 슬립 데리에스 고마쿠라베는 일본의 말터기 강주 축제인 고마쿠라베의 각기 다른 정취를 담은 12종류의 디자인으로 선보인다. 11 정교한 인그레이빙과 에나멜 기법을 접목해 생동감 있는 얼룩과 페가수스 패턴을 완성한 에르메스 케이블 드 루브라 페가수스. 14 금속공예의 정수를 보여주는 블랑팡 사쿠도 컬렉션.

